



2016

작은도서관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작은도서관협회



2016

작은도서관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2016 작은도서관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

❖ 주제 작은도서관에서의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실제

❖ 일시 및 장소

1차 / 수도권 : 10. 4(화) 09:30 ~ 17:00 부천시립상동도서관

2차 / 경상권 : 10. 11(화) 09:30 ~ 17:00 울산북구청

3차 / 전라권 : 10. 18(화) 09:30 ~ 17:00 전라북도청

4차 / 충청권 : 10. 25(화) 09:30 ~ 17:00 천안시중앙도서관

❖ 일정표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09:30-09:50(20`)	등 록	로비
09:50-10:00(10`)	행사 안내 및 인사	주최 및 주관측
10:00-11:30(90`)	작은도서관에서의 독서프로그램 기획	박미숙 (책놀이터도서관 관장)
11:40-12:20(40`)	사례발표 (2개관)	한국작은도서관협회
12:20-13:20(60`)	점심 식사	식당
13:20-14:50(90`)	중년과 노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기획 · 운영	정원임(송파구 소나무 언덕작은도서관 총괄관장)
15:00-16:30(90`)	비전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장대은 (호도애도서관 관장)
16:30-17:00(30`)	설문지 작성 및 폐회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주제강의

- 작은도서관에서의 독서 프로그램 기획
박미숙 / 책놀이터도서관 관장 7
- 중년과 노년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정원임 / 송파구 소나무언덕작은도서관 총괄관장 27
- 비전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장대은 / 호도애도서관 관장 53

프로그램 우수사례

>>> 수도권

-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 반딧불도서관
서정우 / 고양 반딧불도서관 관장 83
- 도서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 새싹작은도서관
박혜영 / 광명 새싹작은도서관 사서 91

>>> 경상권

■ 사업 공모 프로그램 활성화 : 가온누리작은도서관

김정숙 / 울산 가온누리작은도서관 운영자 99

■ 청소년 자기도전 성취포상제 활성화 : 꿈의샘터도서관

김미나 / 부산 꿈의샘터도서관 관장 107

>>> 전라권

■ 재능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 기차길옆작은도서관

이유미 / 완주 기차길작은도서관 실무자 113

>>> 충청권

■ 이야기둘레길 프로그램 활성화 : 북면바로네작은도서관

박현이 / 천안 북면 바로내작은도서관 사무장 119

워크숍 설문조사

..... 125

주 제 강 의



■ 작은도서관에서의 독서 프로그램 기획

박미숙 / 책놀이터도서관 관장

■ 중년과 노년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정원임 / 송파구 소나무언덕작은도서관 총괄관장

■ 비전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장대은 / 호도애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기획하다

박 미 숙
책놀이터작은도서관 관장

1. 들어가며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일단 전국에 생기는 도서관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생기는 도서관 모습도 다양해서 어린이전문도서관, 작은도서관, 다문화도서관 같이 여러 모습으로 도서관들이 탄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에게 어떤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고민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최근 10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도서관 모습에 비해 도서관 활동에 대한 연구나 사례가 일반화되거나 전문화되지는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어린이전문도서관이나 마을 작은도서관 활동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진 도서관에 대한 사람들 인식도 이런 고민을 좀 더 체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보태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도서관이란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곳일까? 도서관에서 펼쳐지는 도서관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보자.

2. 도서관의 역할 -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다?

‘도서관이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른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대부분 어른들은 ‘책을 읽는 곳’ 또는 ‘책을 빌리는 곳’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할 것이다. 거기에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는 대답도 보태어지겠지? 예전에 우리 머리 속 도서관은 그랬다. 일단 버스를 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도서관을 만날 수 있었다. 책을 빌리거나 읽었던 기억도 나지만, 솔직히 ‘공부’를 하러 갔던 기억이 더 많이 난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좀 다르다. 이야기를 하려고 책놀이터 아이들에게 ‘어린이도서관 책놀이터는 어떤 곳인가요?’ 하는 질문을 했다. 잠깐 생각하던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쏟아냈다. ‘책읽다 그림 그리는 곳’ ‘친구들과 도서관 놀이를 하는 곳’ ‘실뜨기를 배울 수 있는 곳 - 요즘 지킴이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아이들과 실뜨기를 많이 하고 있다.-’ ‘시집을 읽어주는 곳’ ‘선생님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독서록을 쓰기 위해 오는 곳’ ‘영화 보는 곳’ ‘잠자는 곳’ ‘매트로 집을 만들 수 있는 곳’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아이들에게 도서관이란 이미 ‘책만 읽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상 속 공간이자 현실 공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자칫 도서관 = 활동을 하는 문화센터나 도서관 = 놀기 위한 장소 라는 등식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도서관이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도서관은 ‘책’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전문도서관 운영자들이나 사서들 모습도 많이 바뀌놓았다. 이제 도서관에서 책 대출과 책 열람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도서관에는 책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문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도서관 속 문화를 어떻게 올바르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실천해갈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3. 도서관 문화 활동 - 도서관에서 놀자!

물론, 도서관에서 해야 할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지역과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도서관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할 것인가, 또 누구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야기 해볼까 한다.

1) 독후활동과 책 문화 활동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독후활동’이다.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 활동이 자칫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학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한다. 물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문화 활동이 ‘책’과 연결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에만 해당할 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 줄게’ 하면 ‘책 읽고 뭐할 건데요?’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뭘 하다니?’ 하면 ‘다 읽어주고 나면 뭐 하라고 할 거잖아요.’라고 한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차’ 할 때가 있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구나.’하는 생각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독서록’을 쓰라고 하고 ‘도서관 문화 활동’은 어떤 결과나 활동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좀 더 책을 즐기고 좀 더 좋은 책임기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꼭 생각해 보고 가야할 것이 있다. 이런 활동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책을 즐기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당장 결과가 보이는 활동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책읽기’ 즐거움을 주기 위해 하는 활동이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그런 부담 때문에 ‘책’을 즐기는 법을 알기도 전에 아이들이 책을 손에 놓아버리는 모습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책읽기는 좋는데 독서록이나 독후감 쓰기가 싫어서 책 읽기가 싫다.’ ‘책을 읽고 나면 꼭 뭐를 하라고 하는 게 싫다.’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너무 강조하는 우리 어른들 모습을 반성하게 되곤 한다.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활동의 완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연장시켜줄 것인가 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을 함께 하는 어른 역할이 중요하다. 어른들이 어떤 태도를 갖

느냐에 따라 아이들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나름대로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 ① 잘하라고 하지 않고 즐겁게 하라고 한다.
- ②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③ 결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른들이 너무 결과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책임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활동 - 뭐하고 놀까?

① 일상에서 놀기

- 책읽어주기 : 사실 책읽어주기만큼 훌륭한 책놀이는 없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책을 가장 즐길 수 있는 활동일 뿐 아니라,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활동이다. 책읽어주기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다만 조금 더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책읽어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놀이터에서는 초창기 건빵선생님 책읽어주기를 하는데, 건빵선생님은 총각선생님이다. 아이들에게는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기 보다는 총각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읽기에 대한 재미가 쏠쏠한 것 같다.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 입에 쏙쏙 넣어주는 건빵 하나도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재미. 지금은 책놀이터에서 자란 청소년 가운데 두 명이 번갈아가며 책읽어주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자원활동가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 빛그림 보기 : 책을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빛그림 보기이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빛그림을 상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테지만, 빛그림을 만들고 상영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무턱대고 동아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빛그림 만들기를 위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좋다.

- 주제 책 전시 : 달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따로 전시해 놓는 것이다. 전시 기간 동안만큼은 책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주제 책 전시는 여러 도서관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주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계절'이나 그 달 특성에 맞다는 까닭으로 진행되는

식상한 주제보다는 ‘여우’ ‘늑대’ ‘똥’이런 주제를 정해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주제’를 공모하는 것도 새로운 재미이다.

- 아이들이 뽑은 책 투표 : 좀 간사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책을 좀 더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책놀이터에서는 그 달에 들어온 신간 가운데 4권을 골라 읽고 하나를 골라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보다 아이들 반응은 대단하다. 4권을 다 읽었다고 하면 스티커를 하나씩 주고 투표하도록 한다. 처음 오는 아이들이나 아직 도서관을 어색해 하는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최소한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그 달에 4권은 읽게 된다. 도서관 크기에 따라 권 수를 달리 좋다. 되도록 그림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야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 동네 영화제 : 정기적으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영화 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작은도서관에서 고민해볼만한 활동이다. 처음에 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해 영화표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도 좋다. 대상을 어린이로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좋다. 책놀이터 경우, 과거에 엄마아빠가 즐겨보면 만화영화 시리즈(태권TV, 마루치아라치, 개구리 왕눈이, 엄마찾아 삼만리, 이상한 나라의 폴 따위)를 상영하면서 함께 영화를 보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영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간단한 영화해설을 해주는 것도 좋다. 영화를 통해 만나는 도서관도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다.

- 책 속 주인공 그리기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자 미술관이자 전시관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도서관에서 늘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책놀이터에서는 이면지와 아이들이 늘 쓸 수 있는 색연필을 마련해주고 어느 정도 책을 읽으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이들이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만큼 좋은 작품은 없다. 그것 때문에 도서관이 조금 지저분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한다. 아이들이 자기가 논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자율적인 그림 그리기가 좀 재미없다고 생각되면 책 속 주인공 그리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 한 달에 한 가지 분야 책을 정해 그 책을 읽고 주인공을 그려오면 일정한 공간에 그 그림을 전시해주는 것이다. 조금 거창하게 행사처럼 하고 싶다면 그럴싸한 종이를 마

런해서 벽에 거는 것도 좋겠다.

- 독서카드 쓰기 : 아이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책을 읽고 뭘 적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자기가 읽은 책을 적어두는 것은 뭐 의미 있는 일인 것은 틀림없다. 독서기록장을 쓰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이겠지만 작은 종이를 잘라두고, (일정한 양식을 주는 것도 좋다.) 하루에 한 권씩만 자기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던 책을 제목과 지은이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적도록 하는 것은 꽤 즐겁게 하는 활동이다. 개수를 정해두고 모아오면 선물을 주는 것도 할- 책나무 키우기와 책도장 찍기 : 독서카드 쓰기와 같은 원리로 도서관 한 쪽에 나무를 만들거나 실제 나무를 활용해서 책 읽은 간단한 소감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에서 해 볼 만한 활동인데 나뭇잎 10개를 쓰면 꽃 하나, 꽃 하나를 쓰면 열매 하나를 쓰도록 하는 것도 재미있다. 이런 활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경쟁을 시키거나 하기보다는 내용을 성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권씩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책 퀴즈 풀기 : 책놀이터에서는 책놀이터 신문을 만들기 때문에 책놀이터 신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문제를 내고 아이들이 응모함에 답을 적어 넣도록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명을 뽑아 간단한 선물을 주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내 보게 하는 것도 재미있다.

- 책읽어주고 간단한 활동하기 : 책읽어주기와 병행하면 좋은 활동이다. 역시 책읽어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정말 간단히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지도하는 어른이 실제로 책읽어주기에 중심을 두고 아이들도 그렇게 한다. (화면자료 참고)

일상으로 책놀이를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간결성’과 ‘무관심(?)’ 그리고 지속성이다. 간결성은 정말 말 그대로 최대한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동을 시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활동 내용도 그래야 한다. 그리고 살짝 무관심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책놀이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 안 된다. 권하기는 하지만, 꼭 해야 할 의무사항처럼 느끼지 않도록 한다.

②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문화 활동들 (책놀이터에서 한 것들 - 화면자료 참고)

- 팝업을 활용한 책이나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 동화속 주인공 인형만들기 (손인형 만들기, 액자 만들기)
- 한지공예 (부채꾸미기, 한지 필통만들기)
- 우리 동네 숲구경과 화전만들기, 옛놀이하기
-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책 전시회
- 동네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옛이야기 책만들기



- 엄마들이 만든 인형극 ‘마법 침대’
- 면 생리대 만들기, 환경수세미 뜨기
- 음식 만들기 (떡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 걱정인형 만들기
- 내 방 문패만들기
- 솜씨 뽐내기 대회
- 여러 가지 강좌들
- 도서관 캠프

- 책놀이터에서 하룻밤을: 여름방학 때 책놀이터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주먹밥도 해먹고, 보물찾기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는 도서관 캠프

③ 도서관을 활용한 활동 - 찾아가는 도서관, 찾아오는 도서관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가 ‘문화 활동’이다. ‘도서관’을 활용하여 도서관 홍보는 물론, 도서관이 어떤 곳이고 책을 읽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한 활동이 바로 찾아가는 도서관, 찾아오는 도서관이다.

- 찾아오는 도서관 : 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적은 수 인원이 견학을 오도록 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책이랑 까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어린이집 책읽으러오기도 대단한 반응을 보였다.

- 찾아가는 도서관 : 놀이터 도서관

봄, 가을 일주일에 한 번 30~40여권 정도 책을 가지고 근처 놀이터로 나가 놀이터 정자에 책을 펼쳐놓고 책을 읽도록 하는 문화 예술 활동. 아이들과 어른, 놀이터에 나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장점도 있는 활동이다.

3) 어떻게 누구랑 놀까?

도서관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이고 걸리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 많은 것들을 혼자 하려고 하거나, 몇 명이서 모두 해내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이 될 것이다. 놀이란, 함께하는 모두가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하는 지 꼭 생각해 봐야 한다. 진행하는 사람도 즐길 마음이 되어 있는 지, 먼저 생각해 보자. 또한 전문가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행사를 전문 강사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라.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를 한 가지씩 발휘하도록 하면, 생각보다 짜릿한 문화 활동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책놀이터에서는 자원활동가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까망이랑 놀자!>와 <아빠와 놀자>가 그것인데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워하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크게 부담을 주는 활동보다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 요리를 잘하면 요리만들기를, 잘 놀면 바깥놀이를, 뜨개질을 잘하면 뜨개질을, 만들기를 잘하면 만들기를, 종기접기나 풍선만들기를 잘 하면 그런 활동들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서관과 품앗이 활동을 해보라고 하고 싶다. 작은도서관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도서관에서 잘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교류해가면 좋을 것 같다. 강사를 소개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원활동가들을 품앗이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4) 좀 더 크게 놀아볼까? - 책잔치

책잔치는 여러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책잔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해보라고 하고 싶다. 단,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얼마든지 있고 함께 준비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책놀이터는 책놀이터 생일 즈음에 늘 책잔치를 한다. 세 번을 했고, 세 번 모두 다른 모습으로 진행했다. 올해 네 번째를 준비하고 있고 이 또한 다른 모습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의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만들어진 상황이 그러하기도 했다. 책놀이터 사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① 첫 번째 책잔치 - 몇 명이 준비해서 진행한 책잔치

첫 번째 책잔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시작한 책잔치였다. 도서관이 문을 연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자원활동가 모임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몇 명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책잔치였다. 최소한 작게 진행하자 했고, 비용도 적게 들여 할 수 있는 책잔치를 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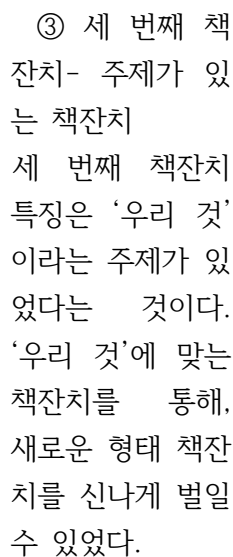
- 내용 : 책 속 주인공으로 분장하기, 뱃지 만들기, 벼룩시장, 책놀이터 아이들이 뽑은 그림책전시, 옛놀이 하기, 주인공되어 사진찍기, 자연물로 만들기, 불만엽서 쓰기와 전시, 바깥도서관
- 홍보 : 포스터와 홍보지를 만들어 동네에 붙이고 홍보지는 학교 앞에서 나눠주었다.
- 성과와 한계 :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재미있는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도서관을 잘 홍보했다는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이 책잔치를 계기로 자원활동가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계는 여럿이서 만들어낸 책잔치가 아니라, 몇 명이 만들어낸 책잔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했다.

② 두 번째 책잔치 - 자원활동가 모임을 중심으로 진행한 책잔치

두 번째 책잔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 받아 진행한 책잔치였다. 이번 책잔치는 처음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두 자원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와 내용은 많이 다르지 않았지만, 먹을거리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었다. 리어카를 빌려와 아이들에게 수레끌기를 했는데 그 게 가장 인기 있었다.

- 내용 : 책속 주인공 행진, 바깥도서관과 책임어주기, 어린이 벼룩시장 (누구나 참가 가능), 책놀이터 아이들이 뽑은 그림책 전시, 옛놀이 하기, 옛이야기 말꼬

- 성과와 한계 : 책잔치 안에 먹을거리 판매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다는 평가가 많았다. 물론, 금전적인 면에서는 얻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책잔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잔치는 어쨌거나 모두 즐거워야 한다. 진행하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 내용

- 홍보

- 성과와 한계 : 아빠들까지 모두 참여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우리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행했던 책잔치였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④ 네 번째 책잔치 -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 준비한 책잔치

네 번째 책잔치를 할 때 책놀이터는 흔히 말하는 ‘기금’을 받지 못했다. 예산이 ‘0’인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일단, 그때 예전에 했던 재료 가운데 변형이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정리했다. 신나게 돌아보자는 뜻에서 옛놀이를 많이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모두 힘을 모아 딱지 접을 우유팩을 모았다. 포스터 100장도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붙이기도 했다. 모든 준비 작업을 도서관에 오늘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준비해나갔다.

- 내용

- 홍보

- 성과와 한계 : 결과는 좋았다. 모두가 즐거운 자리였고, 스스로 움직여 만들고 홍보한 자리였기 때문에 준비한 모두가 뿌듯한 행사가 되었다.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했던 내용을 재활용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책잔치에 자주 왔던 친구들은 재미를 좀 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⑤ 다섯 번째 책잔치 - 다른 나라 그림책과 함께 했던 비오는날 책잔치

다섯 번째 책잔치는 책놀이터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크게 준비했다. 총 네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책잔치 날은 모두 열한 개 나라 그림책을 선정에 그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다. 홍보물도 엽서형태로 만들어 나눠 주기 편하게 했고, 부스별 안내현수막도 달았다. 영미권에 치우친 우리 그림책 문화를 깨보자는 뜻도 있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는 재미도 있었지만, 그 나라 느낌을 주는 활동도 흥미를 끌었다. 그런데 책잔치하는 날에 비가 내렸다. 그런데도 200여명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활동을 했다. 동네 책잔치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4. 작은도서관 문화예술활동 기획

지금까지는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봤다면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도서관에 맞는 문화예술활동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활동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기획과 진행,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획’이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활동은 이 기획 부분을 간과하고 진행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짚고 가기로 하자.

1) 문화예술활동 기획이란 무엇인가?

문화기획이란 ‘어떤 문화적 메시지’를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인력을 얼마나 동원하며,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문화기획의 열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획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과 나아가 그것들 사이의 관계와 수순이다. 문화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그 항목들과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콘셉트와 소구대상, 내용, 예산, 인력, 일정, 장소, 홍보와 마케팅, 사후평가를 들 수 있다. (정준영 외, 2012. 문화산업과 문화기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인용한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도서관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활동도 기획과정에서 어떤 것이 먼저 순서로 올지라도 위에 적힌 내용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준비하고 진행되는 문화예술활동 기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목적’이다. 이 활동을 왜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활동 기획 과정

기획	사례	1순위	2순위	3순위
목적이 먼저 세워지는 경우	엄마들 그림책 이해를 돕기 위해	목적에 맞는 콘셉트 설정	내부 목표 설정	대상, 인력구성, 홍보, 예산, 일정 기획
대상이 먼저 세워지는 경우	1학년 중심	목적에 맞는 콘셉트 설정	내부 목표 설정	인력구성, 홍보, 예산, 일정 기획
일정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	도서관 주간	목적에 맞는 콘셉트 설정	내부 목표 설정	대상, 인력구성, 홍보, 예산 일정 기획
콘셉트가 먼저 세워지는 경우	동화속 캐릭터 꿰매고 만들기	콘셉트에 맞는 목적 설정	내부 목표 설정	대상, 인력구성, 홍보, 예산 일정 기획
인력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	연극할 수 있는 인력 구성 형성	콘셉트에 맞는 목적 설정	내부 목표 설정	대상, 홍보, 예산, 일정 기획
예산이 먼저 정해지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후원	콘셉트에 맞는 목적 설정	내부 목표 설정	대상, 인력구성, 홍보, 예산 일정 기획

<같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같은 의미로 봐도 괜찮겠다는 의미로 표시해준 것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왜’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속 주인공 꿰매기’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다고 할 때 ‘바느질 능력 향상’에 중심으로 둘 것인지, ‘책속 주인공을 이해하기’에 중점을 둘 것인지 ‘즐거움’을 중심에 둘 것인지를 정해야한다. 딱 한 가지를 골라 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중심에 둘 것이 어떤 것인지 정해지면 그에 따라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2) 내부 목표를 정해보자

목적을 정했으면 그 다음은 내부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내부에서 정하는 목표도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예를 이어 말하자면, ‘요즘 우리 도서관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저학년 아이들이 우리 도서관을 좀 더 재미있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내부 목표가 되거나 ‘우리 도서관에서 키우고 있는 강사선생님 능력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자’가 되거나 하는 도서관을 꾸려가는 관계자들끼리 합의하고 가는 내부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3)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나면 인용글에서 표현되었던 소구대상(이용할 대상)을 정한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중심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할 필요는 있다. 1학년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3학년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홍보 전략도 나올 수 있다. 물론,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문화예술활동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위 표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다.

4) 어떻게 누구랑 놀까?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이고 걸리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누구랑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 많은 것들을 혼자 하려고 하거나, 몇 명에서 모두 해내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일’이 될 것이다. 놀이란 함께하는 모두가 즐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하는 지 꼭 생각해 봐야 한다. 진행하는 사람도 즐길 마음이 되어 있는 지, 먼저 생각해 보자.

또한 전문가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행사를 전문강사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라.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를 한 가지씩 발휘하도록 하면, 생각보다 짜릿한 문화 활동을 만들 수 있다. 올해 고양 책놀이터에서는 자원활동가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까망이랑 놀자!>와 <아빠와 놀자>가 그것인데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워하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크게 부담을 주는 활동보다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잘

하는 것. 요리를 잘 하면 요리만들기를, 잘 놀면 바깥놀이를, 뜨개질을 잘하면 뜨개질을, 만들기를 잘하면 만들기를, 종기접기나 풍선만들기를 잘하면 그런 활동들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도서관과 품앗이 활동을 해보라고 하고 싶다. 작은도서관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도서관에서 잘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교류해가면 좋을 것 같다. 강사를 소개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원활동가들을 품앗이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또한 흔히 말하는 ‘강사’가 섭외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사람에 맡길 것이냐 사회나 진행은 다른 사람이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콘셉트와 주요강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 진행은 되도록 도서관 관계자가 하고, 강사에게는 활동에 대한 부분만 맡기는 것을 권하고 싶다. 대부분 강사는 도서관이나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강사에게 다 맡기는 것보다는 전체 진행은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따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겠다.

그밖에 콘셉트에 따라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 보조강사를 정하고 이 보조강사 역시 주강사처럼 목적에 대한 이해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사 당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정리하면 인력구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셈이다.

5) 돈이 문제이다

그 다음은 예산부분인데 작은도서관의 경우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콘셉트를 정하고 예산을 정한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예산에 맞는 콘셉트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강사비와 준비물비를 대상 이용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그 비용에는 보조강사나 진행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사의 경우에도 으레 재능기부를 해줘야 할 것 같이 몰아가거나 하면 안 된다. 책은 다시 채울 수 있고, 문화기획이야 다시 할 수 있어서 사람을 잃고 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문제와 더불어 진행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가치를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6) 발로 뛰는 홍보가 최고다

다음은 홍보이다. 다른 도서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좋은 홍보는 ‘사람’을 통한 홍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하고 또 홍보해줘야 할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한 작은 안내지나 홍보물 또는 도서관 소식지는 꼭 필요하기도 하다.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올려놓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룻길에 홍보지를 돌린다거나 도서관 주변 상가나 단체에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두고 오는 활동같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도서관 회원들에게 도서관 소식을 알리고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 단체 메일을 보낸다거나 단체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좋은 홍보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이밖에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던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도 있지만, 모두 예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결국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활동 홍보는 사람이 사람에게 홍보하고 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5. 문화예술활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준비와 홍보가 다 되었으면 그 다음은 진행과정이 남아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했다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생길 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해 뒀야 한다. 구급약과 사진기, 그리고 비상금은 필수로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할 때는 먼저 세운 목적과 내부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는 좋지 않다. 함께 즐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서야 참여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참여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가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인 경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하는 거다. 활동을 하면서 몇 번 웃는가 세어보겠다’ 던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울게 될 겁니다. 너무 웃겨서일 수도 있고 너무 감동적일 수도 있어서입니다.’하고 시작하면 실제 열린 마음이 되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도서관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할 때 꼭 기억해두었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다. 잘 기록하라는 게 그것이다. 기획과 진행,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되겠지만,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기록에는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예 사진을 찍을 담당자를 미리 정해두고 그 사람은 사진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행사 사진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의 의미보다는 ‘역사를 담는 행위’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행사 직후 찍은 사진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도서관을 홍보하고 다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을 덧붙여 둔다.

‘끝이 좋으면 모두 좋다’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있다.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끝이 중요하다. 끝마무리를 할 때는 모두가 함께 정리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를 함께한다는 것은 일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자들을 그 공간의 주체로 세우는 일이다. 다 같이 모여 단체 사진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다.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강사에게 행사의 공을 돌리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끝까지 잘 챙기는 것이 모든 과정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6. 반드시 평가를 하자

문화예술활동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하자. 함께 준비했던 주체들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참여자들과 함께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면 너무 좋거나 안 좋은 점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거나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 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를 하는 가장 큰 까닭이 ‘지적’이나 ‘잘못’을 들추기 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7. 도서관 문화활동 원칙 - 다시 한 번 정리해보기

- 예술보다는 문화, 문화보다는 일상

1) 도서관 일상을 뛰어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 문화 활동을 많이 고민하다보면 자칫 ‘도서관은 누구나 즐겁게 책을 만나는 공간이다.’는 기본을 넘어설 때가 있다. 우선은 기본을 잘 챙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달에는 뭘 할까?’ 하는 고민보다는 ‘좋은 책을 많이 보도록 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2)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뛰어넘어서는 안된다

문화예술활동은 어떤 전문가가 가르쳐야 할 수 있고, 전문 과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은 꼭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이다.

3) 처음부터 너무 잘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활동 자체에 지치는 경우가 많다. 뭔가를 해준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즐긴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완벽한 도서관 행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면 그 다음엔 더 잘해야 한다. 사람이나 내용이나 조금씩 채워나가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람을 남기는 문화 활동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만남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문화 활동을 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경험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자라나야 도서관도 자라난다.

8. 나오며

인도의 사서인 S.R. 랑가나단은 도서관 5대 법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법칙 : 모든 도서관 이용을 위한 것이다. (Books are for use)

제2법칙 : 도서는 만인을 위한 것이다. (Books are for all)

제3법칙 : 개별도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제공하라.

제4법칙 : 도서관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Save the time of the reader)

제5법칙 :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A library is growing organization)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은 제 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하는 말이다. 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작은도서관 문화예술활동에 빗대서 생각해보면 과연 작은도서관이 왜 문화예술활동을 펼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사람’이 아닐까 싶다.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심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아마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들 통해 변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다시 도서관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 도서관은 그렇게 성장하는 유기체다. ❀

중년과 노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기획 · 운영

정 원 임

송파구 소나무언덕작은도서관 총괄관장

❖ 빈둥지를 차지한 중년 : Bibliotherapy

- 중년여성의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느끼는 빈둥지증후군 증세는 세계 어느 곳보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중년여성의 경우는 갱년기와 맞물리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수년 동안 자존감 상실, 자아정체성의 혼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신체적, 정적 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여건은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발적 책임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중년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 중반부의 시점에서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인 독서량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중년 여성들의 도서관을 통한 책임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를 것을 우선된 목적으로 하면서 그룹 책임기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촉진하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책과 도서관을 친근하게 여겨 도서관을 통한 독서가 생활화 되며 자가 독서 치료 체험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독서 동아리를 결성하여 독서 치료 체험을 장기적으로 지속함으로 자아 존중감 회복, 자아정체성 회복으로 빈둥지증후군 증상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밝고 긍정적인 인생관의 변화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과 도서관 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우수한 도서관 회원으로 성장 시키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 1) 기간 : 2015년 6월 24일 ~ 7월 29일, 수요일 (총12회 차). 1일 2회차 씩 진행
- 2) 운영 시간 : 1차시: 1:00~2:30분 2차시: 2:30~4:00 (1회차 당 90분)
- 3) 참여 대상 : 50대 기혼 여성 (10인 내외). 6월 13일부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받음. 자녀가 모두 대학생 이상이 되어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하였으며, 참여자 본인이 빈둥지증후군 증세를 느끼고 있는 중년 여성
- 4) 장소 : 소나무언덕4호작은도서관
(8호선 송파역 1번출구 도보 5분. 가락고등 옆 소재)
- 5) 신청 : <http://www.splib.or.kr/sp4lib>
전화: 02-419-5100 전화 및 인터넷 신청

3. 자료 선정 기준

- 1) 기존 성인대상 독서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참여자들이 미리 읽어야 할 책을 읽지 않고 오는 참여자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중년 대상의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자료로 선정한다.
- 2) 짧은 분량의 자료들도 참여자들의 상황에 적합하고 독서치료의 원리에 따라 동일화,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감정의 정화와 통찰이 이루어 질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3) 빈둥지증후군 증세를 나타내기 쉬운 중년 여성들의 삶을 깊이 재조명 해 볼수 있는 문학 작품도 일부 선정한다.

4. 운영 방법

- 1) 본 프로그램은 주당 2회, 총 12회로 운영한다. 1회당 운영시간은 90분이다.
- 2)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참여자들의 정서적 상황을 점검 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을 실시한다.
- 3) 각 회 차의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말하기, 글쓰기, 난화, 몸차림도, 인생 곡선그리기, 가계도, 대인 관계도 등의 다양한 치료적 독후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4)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사서가 참여자들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5. 프로그램 평가 방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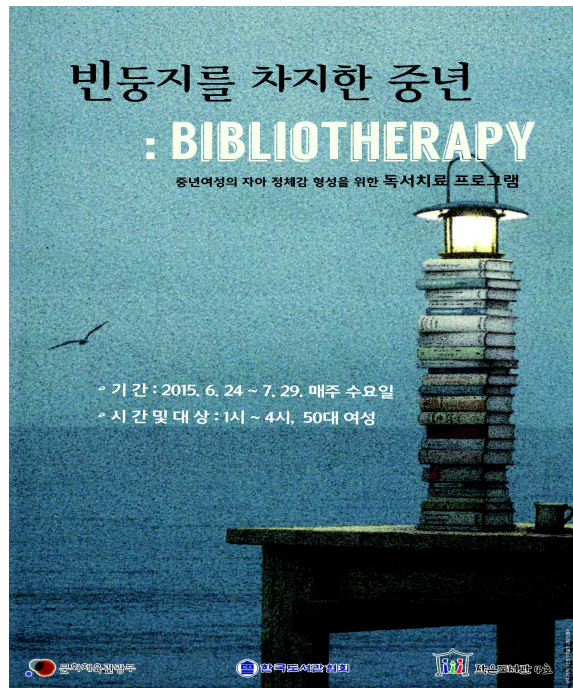
- 1)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는 참여자 대상자는 희망하는 심리 검사를 실시한다.
- 2) 각 회차 시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글쓰기, 난화, 몸차림도, 인생 곡선그리기, 가계도, 대인 관계도 등에 표현되는 정서적 변화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한다.
- 3)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도 첫 시간에 측정한 동일한 심리 검사를 실시하여 참여자의 변화 상황을 점검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한다.
- 4)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정서적 변화와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소감 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한다.

6. 프로그램 세부계획과 진행

회차	주제/상황	세부 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및 참여자 소개, 책임기의 의미	내 마음이 철렁! 난 무서운 늑대라구!	·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작성 · 우울감 검사 · 참여자 소개 · 책임기에 대한 이해
2	책, 도서관에 대한 이해	성장을 위한 책임기, 도서관 활용 필요성	화분을 키워주세요	· 책임기 경험담 나누기 · 도서관 활용에 대한 이해 · 자존감 검사
3	나에 대한 이해 1	자신의 삶 돌아보기	나의 사직동 만희네 집	· 나에 대한 탐색 1 · 이미지 카드로 자신을 표현 · 인생 곡선 그리기 (행복했던 일 중심)
4	나에 대한 이해 2	숨겨진 상처 찾아보기	빨간 나무 마음의 집	· 나에 대한 탐색 2. · 란화 그리기 (상처 중심) · 숨겨진 상처 찾아 떠나보내기
5	부부관계 1	부부 관계 살펴보기	두 사람	· 부부 관계 탐색 1 · 부부관계 진단 검사 · 부부관계 문제점 찾아 보기
6	부부관계 2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 부부 관계 탐색 2 · 이미지카드-변화되고 싶은 부부 · 남편의 장점 찾아보고 감사 카드 작성
7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살펴보기	까만색만 칠하는 아이 문제가 생겼어요	· 자녀와의 관계 탐색 - 가계도 그리기 · 자녀의 감사 카드 작성
8	대인관계	가족, 대인관계 (부모, 형제, 친구) 살펴보기	칭찬 먹으러 가요 손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 이미지 카드로 관계 살펴보기 · 대인 관계 선형도 그리기
9	자존감 회복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	점강아지 똥	· 몸차림도(색으로 건강 표현) · 자신의 긍정적 이해를 위한 이야기 나누기
10	자아정체성 회복	중년 여성으로서의 자아정체성 찾기	마당을 나온 암탉 쪽매	· 조하리의 창을 활용해 자신의 장단점 찾아보기 · 자신에게 편지 쓰기
11	반동지증 후군 극복 방안 모색	삶과 성숙에 대한 이해	리디아의 정원 미스럼피우스	· 독서치유용 힐링 화분 만들기
12	프로그램 마무리	희망하는 삶의 모습 프로그램 평가하기	고맙습니다. 친절한 친구들	· 내가 꿈꾸는 미래를 생각하며 '버킷 리스트' 작성 하기 · 2차 심리 검사 (우울감, 자존감 검사) · 참여 소감, 프로그램 총평

<프로그램 준비-자료 1>

프로그램 포스터 ⇨



Bibliotherapy
빈둥지를 차지한 중년

- 중년여성의 자아 정체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유 프로그램 -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에서는 **중년 여성들의** 자아 존중감 및 자아정체성 회복을 위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운영기간 : 2015년 6월 24일 ~ 7월 29일 (매주 수요일)
- ❖ 운영시간 : 오후 1:00~4:00
- ❖ 운영장소 :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 ❖ 참여대상 : **50대 여성 15명 내외**
- ❖ 참가신청 :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방문 및 전화 접수**
- ❖ 문의 및 신청: **419-5100**
- ❖ 프로그램 진행: 정원임 (송파어린이도서관 관장)

순서	주제	순서	주제
1주	책, 도서관에 대한 이해	4주	자녀, 대인 관계 살펴보기
2주	나에 대한 이해	5주	자존감, 자아정체성 회복
3주	부부 관계 살펴보기	6주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

- 출처: 신사임당 탄생 510주년 기념 구글 로고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중년대상 치유적 책읽기의 필요성 이해	1차시	2015년 6월 24일	시간	90분
세부 목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치유적 책읽기의 필요성을 이해 할 수 있다.				
선정 자료	내 마음이 철렁 / 자넷 A. 홀즈/ 초록물고기 / 2013 난 무서운 늑대라구 / 배키 블룸 / 고슴도치 / 1999				
준비물	12차시 프로그램 계획서, 서약서, 우울감 검사지, 선정 그림책 2권,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도입 (15')	1. 중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해 준다. 2. 정서적 성장을 위한 책읽기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한다. 3.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다.				
전개 (65')	1.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포함해서 참여자 개인 소개를 실시한다. 2. 우울감 검사지를 사용하여 개인별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고 자신 의 생각과 비교 해 본다. 3. <내마음이 철렁>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그림책을 재미나게 깊이 보는 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4. <난 무서운 늑대라구!>를 함께 본후 늑대와 마을의 변화에 대해 여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눈다. 5. 자신에게 있어 책읽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둠별로 생각을 나눈다.				<내 마음 이철렁>, <난 무 서운 늑대 라구!>
정리 (10')	1. 진행자가 참여자들의 발표를 정리하여 책읽기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어떤 변화 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2. 프로그램중 나눈 이야기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다. 3. 2차시 수업 내용에 대해 간략히 공지한다.				

(1)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제명	중년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책읽기의 의미		
	강사	정원임		
	대상	50대 중년 여성 12명		
	활동기간	2015년 6월 24일	총 차시	1
	장소	소나무언덕4호작은도서관		
일시	수업내용			참석인원
6월/24일 (수요일) 13:00~14:30	▪종합 목표: 중년대상 치유적 책읽기의 필요성 이해 ▪세부 목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치유적 책읽기의 필요성을 이해 할 수 있다. ▪독서 활동: 그림책 함께 읽고 토론하기, 심리검사 ▪내용: 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포함해서 참여자 개인 소개를 실시하였다. ② 객관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프로그램 시작 전에 우울감 검사지를 사용하여 개인별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 해 보았다. ③ 진행자가 <내마음이 철렁>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그림책을 재미나게 깊이 보는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다. ④ <난 무서운 늑대라구!>를 함께 본 후 늑대의 책읽기 활동이 늑대 본인과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에 대하여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사람이 정리 한 다음 전체 발표를 하였다. ⑤ 참여자 자신에게 있어 책읽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둠별로 이야기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12명
자체평가	50대 중년여성들 대부분이 처음으로 순수 그림책을 경험해 보면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만족 해 했다. 중년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어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만족 해 했다. 자기 소개 시간때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많았다. 그림책을 보고 6명씩 두팀을 구성하여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첫 시간이어서 인지 대화의 물꼬를 티우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			
기타 의견	- 도서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인 작은도서관에서 50대 중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15명 정도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것이 힘들었다.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중년이 많이오는 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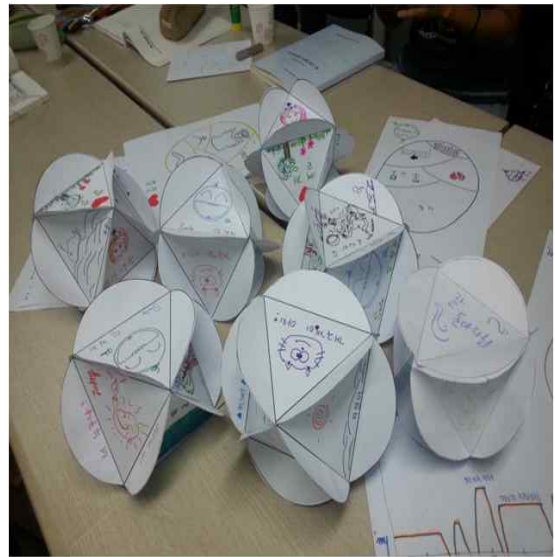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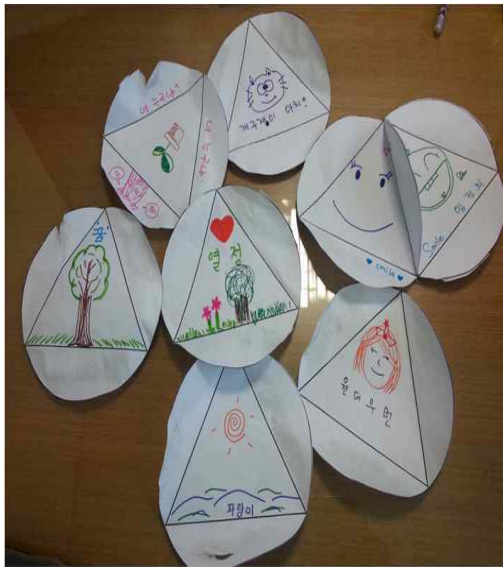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안

종합 목표	중년대상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 이해	2차시	2015년 6월 24일	시간	90분
세부 목표	중년의 도서관을 통한 책읽기와 프로그램 참여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 수 있다.				
선정 자료	화분을 키워 주세요 / 진 자이언 / 웅진닷컴 / 2001				
준비 물	선정 그림책 1권, 도서관 이용교육 동영상, 자존감 검사지,				
지도 요소	관련 활동				
도입 (15')	1. 참여자들을 2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며 팀 안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 할수 있도록 한다. 2. 정서적 성장을 위한 책읽기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전개 (65')	1. 자존감 검사지 측정을 통하여 본인의 자존감 상태를 인지한다. 2. 책읽기를 통해 정서적 안녕감을 경험한 사례 나누기를 한다. 3. 공공도서관 이용 교육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소개 동영상을 보고 중년여성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 알도록 한다. 4. 「화분을 키워 주세요」 그림책을 함께 보고 모둠별로 그림책을 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모둠별로 발표 한다. 5. 자신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사례를 모둠별로 나눈다.				「 화 분 을 키위 세요」
정리 (10')	1. 진행자가 참여자들의 발표를 정리하여 중년 여성들의 책읽기와 도서관에서의 독서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2. 도서관 회원 가입과 도서 대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해 준다. 3. 3차시 수업 내용에 대해 간략히 공지한다.				

(2)차시 시범적용 활동 보고서

프로그램	주제명	중년 대상의 공공도서관 이용 필요성		
	강 사	정원임		
	대 상	50대 중년 여성 12명		
	활동기간	2015년 6월 24일	총 차시	1
	장 소	소나무언덕4호작은도서관		
일시	수업내용			참석인원
6월/24일 (수요일) 14:30~16:00	▪ 종합 목표: 중년대상 도서관 이용의 필요성 이해 ▪ 세부 목표: 중년의 도서관을 통한 책읽기와 프로그램 참여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 수 있다. ▪ 독서 활동: 그림책 함께 읽고 토론하기, 동영상 보기, 심리검사 ▪ 내용: 1. 자존감 검사지 측정을 통하여 본인의 자존감 상태를 검사했다. 2. 책읽기를 통해 정서적 안녕감을 경험한 사례를 나누었다. 3. 도서관 이용 교육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소개 동영상을 봤다. 4. 「화분을 키워 주세요」 그림책을 함께 보고 모둠별로 그림책을 본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모둠별로 발표 했다. 5. 자신들의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사례를 모둠별로 나누었다.			총12명
자체 평가	50% 정도의 참여자들이 우울감 검사, 자존감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울감 정도는 높고,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들은 대체로 발표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참여자들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필요 할 것 같았다. 책을 직접 읽어 와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을 좋아했으며 참여자 모두 바로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행이 용이했다. 참여자들이 도서관 이용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소개 동영상을 보며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에서 중년 여성들이 참여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의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50% 이상이었으므로 중년 이후 세대를 대상으로 도서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았다.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한 사례 발표시엔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했던 중년 참여자는 거의 없었다.			
기타 의견	- 본인 스스로 우울감이 높다는 참여자들에 대해서 진행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시에 세밀히 관찰하고 개별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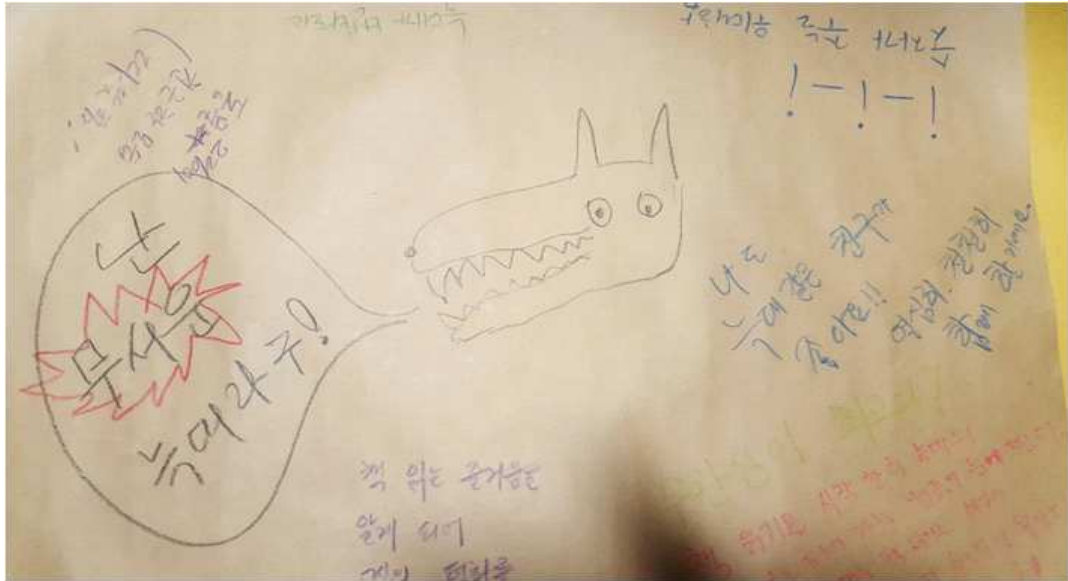
<자료 1> 자기소개와 모둠 소개



<자료 2> 이미지 카드 한 장으로 자신의 기분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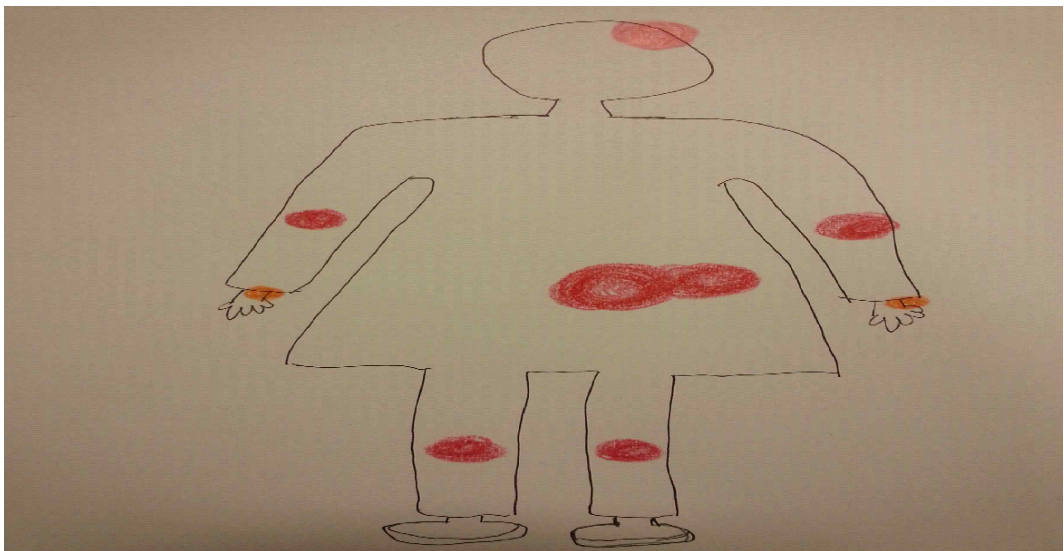


<자료 3> 「난 무서운 늑대라구!」와 「화분을 키워 주세요」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며 적은 글



<자료 4> 몸차림도 그리기

* 자신의 신체 중 아픈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참여자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격려를 받는다.



<자료 5> <**야, 너 참 잘~ 살았어!> 자신에게 편지 쓰기

사랑하는 자야!

이순의 나이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야를 가족이 원했던 삶이 내거라 생각하며 글을 쓰게 되어 반갑다네.
장녀로 태어나 책임감과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도 살아온 자야!
돌이켜보면 힘들 때도 있었고 그중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두 아이들 잘 자라주어 고맙고, 그런 남편 이해하며 뒷바라지 하고 사느라
수고했어.
그런 중에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다듬고
가꾸어가는 너를 걸면 무척 대견하네.
사랑하는 자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챙기고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작아도 아름다운 밑알의 역할도 해야지..
아침 곧 할머니 되면 손주들에게 좋은 동화책도 읽어주고
손주가 좋아하는 예쁜 할머니가 될거지.
그러면서 건강하게 멋진 삶을 마무리하길...

2015.7.22.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며. 경자.

<자료 12> 힐링 나눔
화분 만들기



7. 중년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 효과

1) 작은도서관 운영 측면에서의 효과

- 도서관 이용과 사회 문화적 활동에서 소외 되기 쉬운 중장년, 실버 대상에게 그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독서 환경을 제공 한다.
- 프로그램 종료 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중년 대상의 독서 동아리를 결성하여 도서관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이용층의 확대 효과를 가져 온다.
- 작은도서관에서 생애 주기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 할수 있다.
- 중년 독서 동아리의 자원 활동으로 도서관의 책임어주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작은 도서관 에 충성도가 높은 우수 회원을 확보 할 수 있다.
-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활동가를 확보 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참여자 측면에서의 효과

- 중년의 생애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독서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책임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중년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점검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고 밝고 긍정적인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과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중년들에게 그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좋은 그림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 주고,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감성을 길러 줄 수 있으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 그림책과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프로그램 종료 후 독서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 도서관 이용 방법 숙지, 지역사회 도서관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 책읽기와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통해 평생 교육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참여자들은 중년 이후의 보람된 삶을 위하여 다양한 재능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효과

- 중장년층의 독서 인구 증가는 ‘책 읽는 도시’, ‘인문학 도시’ 만들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 문화 복지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중년, 실버층에서 독서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 발달 단계에 적합한 중년, 실버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이용이 저조한 중장년층 대상의 독서 문화 운동을 펼칠 수 있다.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노령화 사회를 맞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 복지 정책을 지원한다.
-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으로 책 읽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유치원 등에서 책읽어 주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격대교육(隔代教育)이 이루어 질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지역사회에 실버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활성화 되어 있으나 중장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이다. 중장년을 위한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건강한 실버시기를 준비 할 수 있는 정책이 된다.
- 중년의 도서관 독서 동아리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활동가 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은나래 시장(시부모, 장인장모)들의 마음 나들이

- Bibliotherapy : 노년 대상의 통합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

1.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실버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헌신했던 만큼 자녀들의 독립과 출가 후에 역할의 상실감과 남은 생에 대한 불안감 등에서 오는 정신적 변화와 신체적 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여건은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발적 책임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삶을 재조명해 보고, 노년기 발달단계에 필요한 통합감을 형성해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성인 독서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노인들의 도서관을 통한 책임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를 것을 우선된 목적으로 하면서 그룹 책임기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노년기의 통합감을 형성하여 상실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밝고 긍정적인 인생관의 변화를 가져와 일상생활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지속적인 도서관 독서 동아리 활동과 독서 재능나눔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1) 기간 : 2015년 9월 22일 ~ 11월 3일 매주 화요일. 총 12회 (1일 2회차 진행)

- 2) 운영 시간 : 오후 1시 - 4시. (1회 차 당 90분)
- 3) 참여 대상 : 60대 여성 (10인 이내)
- 4) 장소 : 소나무언덕4호작은도서관 (송파역 1번 출구 인근)

3. 자료 선정 기준

- 1) 노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진행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림책, 시, 수필 등의 자료로 선정한다.
- 2) 짧은 분량의 자료들도 참여자들의 상황에 적합하고 독서치료의 원리에 따라 동일화,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감정의 정화와 통찰이 이루어 질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 3) 노년 대상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재조명 해 볼 수 있는 책, 자신과 비슷한 노인들의 삶의 체험을 다룬 책과 영화 등을 포함하여 공감대를 높일수 있는 문학 작품과 영상 자료도 일부 선정한다.
- 4)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통합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의 자료를 선정한다.

4. 운영 방법

- 1) 본 프로그램은 6주간 주 2회, 총12회로 운영하며 1회당 운영시간은 90분으로 한다.
- 2)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참여자들의 정서적 상황을 점검 할수 있는 자가 진단을 실시한다.
- 3) 각 회차의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책읽기, 말하기, 글쓰기, 난화 그리기 등의 다양한 치료적 독후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4)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사서가 참여자들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5. 프로그램 평가 방법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1) 프로그램 시작 시점의 참여자 대상의 Satir 자존감 검사지, Beck 우울감 검사지를 사용하여 자가 점검을 실시한다.
- 2) 각 회차 시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글쓰기, 난화 그리기 등에 표현되는 정서적 변화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한다.
- 3) 프로그램 종료 시점의 참여자 대상의 Satir 자존감 검사지, Beck 우울감 검사지를 사용하여 참여자의 변화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의 안녕감 변화를 살펴 본다.
- 4)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정서적 변화와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소감 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 한다.

6. 프로그램 참여자가 할 일

주 1회 3시간씩 6주간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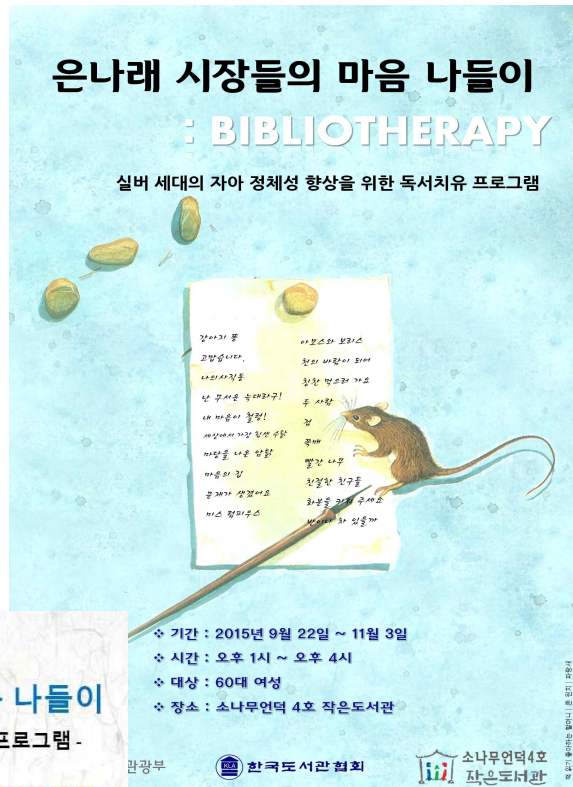
자신의 삶을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

7. 프로그램 세부 계획

회차	주제/상황	세부 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및 참여자 소개, 실버 책읽기의 가치 알기	내 마음이 철렁! 난 무서운 늑대라구!	. 프로그램 소개 . 서약서 작성 . 참여자 소개 및 참여 동기 . 우울감 검사
2	책, 도서관에 대한 이해	독서 치료 및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해	책읽기 좋아하는 할머니 존 위치/ 파랑새어린이 화분을 키워 주세요	. 책읽기 경험담 나누기 . 도서관 이용 교육 . 시 함께 읽기
3	나에 대한 이해 1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기	나의 사직동 어린이나무	- 이미지 카드로 나를 표현해 보기 - 인생 곡선 그리기 (행복했던 일 중심)

4	나에 대한 이해 2	감정 이해와 수용	마음의 집 빨간 나무	-란화 그리기 (마음의 상처 중심) -숨겨진 상처 찾아 떠나 보내기 . 시 함께 읽기
5	부부 관계 이해 1	부부관계 살펴 보기	두사람 반이나 차 있을까	-이미지 카드로 부부 관계 를 이야기 해 보기 .자신의 장점 찾아 보기
6	부부 관계 이해 2	부부 관계 증진 방안 모색	칭찬 먹으러 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 가족 관계 가계도 그리기 . 시 함께 읽기
7	가족 및 대인 관계 이해	자녀와의 관계 살펴보기	가족의 탄생 /허은미/웅진 주니어/ 2014 세상에서 가장 힘센 수탉	-이미지 카드로 가족에 대 해 이야기하기 . 대인 관계 관계도 그리기
8	가족 및 대인 관계 이해	대인 관계 살펴보기	친절한 친구들 오른발 왼발 / 토미드 파 올라 / 비룡소	. 주변인의 죽음을 극복한 경험 사례 나누기 . 시 함께 읽기
9	노후 생활에 대한 이해 1	건강, 죽음에 대한 불안 감소	천의 바람이 되어 우리 할아버지/ 릴리스 노 만 / 미래 아이 우리 할아버지 / 존 버닝 햄 / 비룡소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10	노후 생활에 대한 이해 2	상실감 극복 및 자존감 증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너/ 린가 크란츠 / 걸음동무 강아지 똥 나는 참 늦 복 터졌다	-이미지 카드로 장래 희망 하는 삶 이야기 하기 . 시 함께 읽기
11	자아 통합감 증진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캐리티 이야기가 있는집/ 아니크 르 레이/한울림어린이	. 나는 어떻게 나이들고 싶 은가? 글쓰기
12	프로그 램 마무리	프로그램 평가하기	손큰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고맙습니다	. 나의 꿈 목록 작성하기 .참여 소감 나누기 . 시 함께 읽기

<프로그램 준비-자료 1>
프로그램 포스터⇨



Bibliotherapy
은나래 시장(시어머니, 장모)들의 **마음 나들이**
- 실버 세대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독서치유 프로그램 -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에서는 **실버 세대의 자긍감 증진 및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운영기간 : 2015년 9월 22일 ~ 11월 3일 (매주 화요일 6회)
- ❖ 운영시간 : 오후 1:00~4:00
- ❖ 운영장소 :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 ❖ 참여대상 : 60대 여성 15명 내외
- ❖ 참가신청 : 9월 1일 오전 9시부터 방문 및 전화 접수
- ❖ 문의 및 신청 : 419-5100
- ❖ 프로그램 진행 : 정원임 (송파어린이도서관 관장)

순서	주제	순서	주제
1-2차	책, 도서관에 대한 이해	7-8차	대인 관계, 상실감 극복
3-4차	나에 대한 이해	9-10차	자긍감 증진
5-6차	가족 관계 살펴보기	11-12차	자아 통합감 증진

소나무언덕 4호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준비-자료 2>
⇨ 안내 홍보물

<자료 1>

Beck 우울감 검사지

다음의 각 내용은 모두 네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항을 읽어보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항을 선택하여 번호를 ()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 () 1. 0) 나는 전혀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다.
1) 나는 가끔 우울하고 슬프다.
2) 나는 항상 우울하고 슬프다.
3)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고 불행하다.
- () 2. 0) 나는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낙담하지 않는다.
1)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다.
2) 나는 미래에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3) 나는 미래에 희망이 없으며 무언가 좋아질 기능성도 없다.
- () 3. 0) 나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일에서 실패를 해왔다.
2) 내 인생을 되돌아 볼 때, 나는 항상 실패만 해왔다.
3) 나는 한 인간으로서는 철저한 실패자이다.
- () 4.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1)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 ()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가끔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 () 6.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7. 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이 싫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2) 나는 잘못에 대해 항상 자신을 질책한다.

3)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하여 자신을 질책한다.

() 9.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 10.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더 자주 운다.

2) 나는 요즘 항상 운다.

3)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 11. 0) 나는 전보다 자주 화를 내지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2)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 12. 0) 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 13. 0) 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 1)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 2) 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3) 나는 더 이상 어떤 경정을 내릴 수가 없다.
-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 1) 나는 내가 나이 들고 매력 없게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
 - 2) 이제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 모습이 변했다.
 - 3) 나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 ()15.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 1)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 2)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 3)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 ()16. 0) 나는 전처럼 잘 잔다.
- 1)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 2)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 3)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 ()17. 0)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 2)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 마다 피곤을 느낀다.
 - 3)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18. 0)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 1) 내 식욕은 전처럼 좋지 않다.
 - 2) 내 식욕은 요즘 매우 좋지 않다.
 - 3) 요즘은 전혀 식욕이 없다.
- ()19. 0) 나는 요즘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 1)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 3)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 ()20. 0)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지는 않는다.

- 1)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 2) 나는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여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3)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다.

() 21. 0) 나는 요즘도 성(性)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 1)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적다.
- 2) 나는 요즘 성(性)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 3) 나는 성(性)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① 점수 합계_____

② 해석

0-9 : 우울증 증세가 없음

10-15 : 약간 우울증 증세가 보임

16-23 :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음

24-63 : 심한 우울증 증세가 있음

성 명:

검 사 일:

비 고 사 항 :

<자료 2>

Satir 자존감 검사지

다음 문항들을 읽고 현재 자신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 이라고 생각되는 문항에 0 표 하시오

1 2 3 4 5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중간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 항	생각 나는 정도				
	자 주	가 끔	중 간	거 의	전 혀
1. 나는 변화가 두려워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1	2	3	4	5
2. 나는 거부당할까봐 표현을 못 한다.	1	2	3	4	5
3.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4. 나는 나 자신의 조그만 실수도 용서하기 힘들다.	1	2	3	4	5
5. 나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곤 한다.	1	2	3	4	5
6. 나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기 힘들다.	1	2	3	4	5
7. 나는 나 자신을 몰아붙이듯 일을 한다.	1	2	3	4	5
8. 나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1	2	3	4	5
9. 나는 높은 지위를 얻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	1	2	3	4	5
10. 나는 결단력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곤 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비판적이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1	2	3	4	5
13. 나는 조금이라도 상황이 안 좋으면 최악의 상황이 일어 날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나는 돈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한다.	1	2	3	4	5
15. 나는 외모에 자신이 없다.	1	2	3	4	5
16.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한다.	1	2	3	4	5
17. 나는 완벽해야 한다.	1	2	3	4	5
18.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19. 나는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20. 나는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충족시켜 주기를 원한다.	1	2	3	4	5
22. 나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비슷하기를 바란다.	1	2	3	4	5
23. 나는 모든 것들이 겹치지 않으면 회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4. 나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많아 미래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5. 나는 자주 우울 하다.	1	2	3	4	5
26. 나는 내가 여성(남성)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1	2	3	4	5
27. 나는 자주 실패감에 빠지곤 한다.	1	2	3	4	5
문 항	자	가	중	거	전
	주	끔	간	의	혀
28. 나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나는 감정이 쉽게 상한다.	1	2	3	4	5
30.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5
31. 나는 평소에 많이 긴장 한다.	1	2	3	4	5
32. 나는 중요한 인물과의 교분을 통해 나의 가치를 추구한다.	1	2	3	4	5
33.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4	3	2	1
34. 나는 타인과의 갈등을 만족스럽게 해결한다.	5	4	3	2	1
35. 나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5	4	3	2	1
36. 나는 삶을 열정적으로 산다.	5	4	3	2	1
37. 나는 내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5	4	3	2	1
38.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5	4	3	2	1
39. 나는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5	4	3	2	1
40. 나는 나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5	4	3	2	1
41.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다.	5	4	3	2	1
42. 나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자원이 있다.	5	4	3	2	1
43.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표현한다.	5	4	3	2	1

44. 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5	4	3	2	1
45.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변화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5	4	3	2	1
46.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4	3	2	1
4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 한다	5	4	3	2	1
48. 나는 상황이나 감정에 많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	5	4	3	2	1
합 계					

① 점수 합계 _____

② 해석

0-90점 : 낮은 자존감

91-120점: 조금 낮은 자존감

121-180점: 보통 정도 자존감

181점 이상: 높은 자존감

성 명: 점 사 일: 비 고 사 항:

작은비전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장 대 은
호도애작은도서관 관장

1.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의 대 전제

- 1) 도서관 프로그램은 단순 문화센터식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체계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 2) 도서관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체계성은 다른 곳으로 찾는 것이 아닌 도서관의 십진분류법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십진분류는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기준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비전을 디자인 하는 마중물로 삼을 수 있다. 십진분류를 중심으로 기획하는 비전을 키우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하나 정확하게, 둘 연결하고, 셋 조직화해야 한다.

하나, 정확하게라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 제대로 된, 확실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프로그램은 독서프로그램대로, 음악프로그램은 음악프로그램대로, 미술 프로그램은 미술프로그램대로의 체계성, 전문성을 조금씩 준비시켜가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 연결하라는 것은 독서와 음악을 연결하라는 것이다. 독서와 미술을 연결하라는 것이다. 독서와 체험활동을 연결하라는 것이다. 도서관의 모든 활동은 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영역의 주제들로 연계되어 갈 때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

그 중에서도 독서프로그램의 정확성(전문성, 체계성)이 담보될 때라야 다른 프로그램과의 접목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3) 조직화하라는 것은 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 짓는 것을 넘어 4-5개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세워가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목표와 전문성을 살리되, 그 프로그램들이 엮여져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서 서로가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도애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북 페스티벌의 가장 큰 목표는 읽기의 즐거움을 체험케 하는 것이다. 그것도 배움의 과정속의 진보를 느끼게 하는 것이기에 다른 프로그램들, 작곡, 미술, 기타 체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획의 과정이고 장기간의 프로그램 진행과정 속에서 목적과 목표, 진행 프로그램의 연결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4) 십진분류를 도서관 독서교육 및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목록을 선정하여 도서를 추천하는 목록선정에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아이들에게 분류와 나누어 볼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십진분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십진분류 안에 얼마나 다양한 주제가 펼쳐져 있는가!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의 미래는 책 어딘가에 담겨 있는 직업과 꿈, 인생을 살아간 이들의 비전과 연결될 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아이들뿐이겠는가? 인생이모작을 이야기하는 중/노년의 이웃들뿐만 아니라 꿈을 잇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는 부모들.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작은 도서관을 통해 또 다른 이웃과 연결되고 도서관의 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미처 잇고 있던 꿈과 비전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를 삼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 모든 프로그램은 준비해야 할 분명한 영역,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하나 작은도서관 안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을 통한 마을공동체 세우기에 관심을 갖는 이때에 단순히 작은도서관의 수적인 확장만이 아닌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하려면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독서문화활동에 세워져야 하며 그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마을 공동체 안에 있는 숨은 인재를

찾아 발견하고, 그들을 하나로 엮어 도서관을 세워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서관은 책 이전에 그것을 만들고 다루는 사람이 우선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하며 도서관의 책과 문화 프로그램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개되는 비전을 키우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호도애작은도서관의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작고 큰 열매를 맺어 온 실제적인 것이며 어느 곳이던 적용 가능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비전을 찾고 키우기 위해 진행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 진행된 북페스티벌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역사의 마중물이다.
도서관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2. 북 페스티벌의 목적설정의 배경 및 기획방향

책은 우리들이 누릴 자유다!
책 읽기의 즐거움과 과정의 진보, 성장을 경험하자!

- 1)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마을도서관에서 만나는 지역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
- 2) 아이들이 추구하고 즐기는 수많은 즐거움과 그것을 주는 프로그램(대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대변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 있고 그것도 유익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의 아이들은 독서의 즐거움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 즐거움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부터 찾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에 다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기획이다.
- 3) 실제 생활에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의 진보, 성숙을 독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획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

- 4) 무엇보다도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데 다른 문화영역, 프로그램들과의 조화는 그 즐거움과 성취, 성숙의 경험을 배가시키기에 십진분류 각 영역을 책으로만이 아닌 각자의 문화코드로 독서와 연결 지어 프로그램에 적용하게 되었다.

3. 북 페스티벌의 목표

- 1)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마을도서관에서 만나는 지역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책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 하게 될 도서관 선생님들과의 관계 맺기에 목표를 두었다. 아이들과 얼마만큼 가까워 지는가는 목표를 이루는 정도가 본 프로그램의 성공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2) “아이들이 추구하고 즐기는 수많은 즐거움과 그것을 주는 프로그램(대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대변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 있고 그것도 유익한 것일 수는 있어도 많은 경우에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 그 즐거움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 즐거움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부터 찾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에 다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독서의 즐거움, 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게 기획을 하게 되었다”는 기획의도에 부합하기 위해 독서의 즐거움을 먼저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또래 또는 가까운 연령대의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도 실현가능한 것임을, 그 가능성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부여한다.
- 3) “실제 생활에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배움의 과정 속에서의 진보, 성숙을 독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획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전 단계에서 동기가 부여된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독후활동과 발표, 나눔을 통해 시간 속에서 진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교사의 강의 위주가 아닌 철저하게 자신이 생각하며 직접 참여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4) “무엇보다도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데 다른 문화영역, 프로그램들과의 조화는 그 즐거움과 성취, 성숙의 경험을 배가시키기에 십진분류 각 영역을 책으로만이 아닌 각자의 문화코드로 독서와 연결지어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미술(프로그램 만화제작), 음악(작곡과 콘서트), 만남과 대화, 공모전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독서프로그램과 잘 조화 시켜 단계별로 진행시켜 간다.

4. 북 페스티벌의 진행

1) 관계 맺기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교사 자신의 꿈과 이야기, 고민 등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스스로를 먼저 오픈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오픈하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 간다. 신문의 사건 사고 소식 등을 통해서도 이야기의 소재

독서문화프로그램 활동사진		사 진 설 명	
	일 시	5.20	
	장 소	호도애도서관	
	참여대상	호도애친구들	
	참여인원	총9명	
	사진내용	미래이력서를 작성할 때신문활용교육	

- 2) 친근감을 형성해 가기 위해 외부 프로그램 강사로 미래건축 디자이너를 초청하여 미래 내가 살아보았으면 하는 집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토대로 미래 건축디자이너가 꿈의 집을 완성한다. 다 그려진 그림을 서로 나누며 자신이 실제로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구체적인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그림이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매우 좋은 도구이다. 그것이 미래의 나의 집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일 시	6.10
	장 소	호도애도서관 쉼터
	참여대상	호도애친구들
	참여인원	9명
	사진내용	미래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디자인하는 꿈꾸는 건축사무소

3) 자신이 꿈꾸는 직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 미래 꿈을 그림으로 표현해 줄 케리커처 작가를 초청한다. 미래 건축디자인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

(1) 마음의 동기부여

① 또래 또는 어린이, 청소년 저자들의 책을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는 단순히 숙제, 과제가 아니고 우리 집이 아닌 우리들의 누릴 즐거움이요, 축복임을 알려준다. 이것이 말일 때는 또 하나의 교훈이나 가르침이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가 진해한 독서, 글쓰기의 결과물과 그것을 통해 성장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면 읽기와 쓰기가 자신과 먼 이야기가 아닌 가까이 있는 선택임을 깨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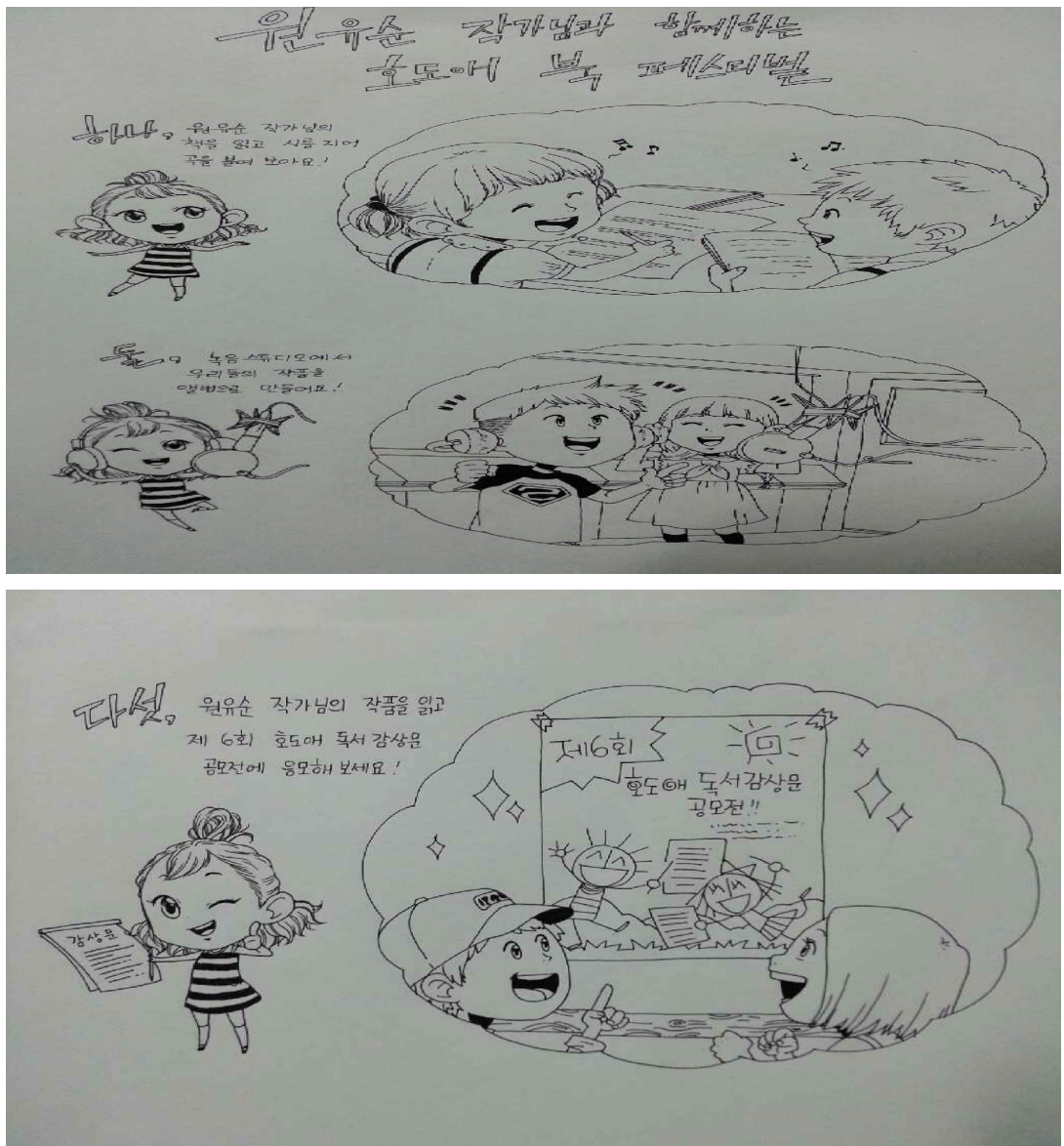
2013-2015년 진행된 과정에서는 호도애 도서관의 책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쓴 저작물들을 돌려가며 읽게 하므로 나오는 상관없는 독서,

글쓰기가 아닌 내 옆 친구들이 이론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도 미래 상상해보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 그 주에서도 호도애 도서관 관장의 장녀(현재 14세)가 초등 2학년 때 쓴 책을 나눌 때면 자신들이 같이 놀고, 대화하는 친구가 쓴, 그리 특별하지 않은 아이가 읽기의 과정을 거쳐 쓴 것이기에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 ② 또래 저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진행했던 과정을 직접 이야기 듣고 궁금한 부분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시간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세워가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될 것이다. 또래 친구 독서가, 작가와의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세워지는 자신감은 어른들이 들려주는 교훈을 넘어 마음의 동기부여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어준다. 2013-2015년에 진행된 이 과정에서는 본 과정에도 동참중인 초6 학년 장호아 학생과 이전에 이 과정을 거친 중등 2학년 김민희 학생과의 만남을 통한 교제를 나누었다.

(2) 단계적인 읽기, 쓰기(독후) 활동

- ① 본격적인 독서프로그램 진행단계로 그 회기에 선정된 작가의 책을 중심으로 책을 읽어나간다. 2013년도 북 페스티벌의 경우 ‘까막눈 삼디기’의 저자 원유순 작가를 주제 작가로 선정하고 그의 책 46권을 도서관에 구입, 별도의 잡지 서가에 배치시킨 후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추천, 읽게 한다.
- ② 원유순 작가의 책을 읽은 아이들이 매 권 자신의 단계에 맞는 독서록 양식에 독후감상문, 독후 감상화를 작성해 가고 시로 표현해 본다.
- ③ 46권의 저서를 다 읽은 아이들은 원유순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종합 글을 자유 글쓰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④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글짓기 교실이 아니고 대회가 아니기에 아이들이 기록한 글은 평가의 재료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그 내용에 담겨있는 기회를 참여자의 생각과 관점을 중심 소재로 삼고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발표할 수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목표를 둔다.



(3) 다른 문화영역과 연결시켜 읽은 책의 주제, 내용을 표현한다.

① 그림으로 지금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북 페스티벌에 대해 묘사한다.

② 만화가 선생님을 초청하여 아이들 앞에서 함께 북 페스티벌의 과정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작품 의뢰로는 공모전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한다.



감상문 제출은 성남시의 자랑^^ 호도애 도서관 홈페이지 www.hodoe.com 공모전 게시판에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전 단계에서 독후 활동으로 지은 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든다. 다행히 호도

에 자원활동 선생님 가운데 작곡을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2012년 8월부터는 5년간 작곡을 호도애 프로그램으로 매주 정기 운영 중인데 매 해 북페스티벌에는 독후 활동으로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작품 활동으로 작곡을 추가하여 진행 할 수 있었다.

- ④ 만들어진 노래를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녹음하여 cd로 제작한다. 돈을 많이 들여 제작하는 cd라기보다는 1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대여비에, 결과물을 1-2천원하는 cd에 담아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차원에서 상시 진행된다.

	일	시	7.29
	장	소	에스엘 스튜디오
	참여대상		호도애친구 들
	참여인원		9명
	사진내용		작사/작곡 한 곡을 녹음하는 과정

- ⑤ 원유순 작가의 책을 중심으로 2-3개월 책을 읽고 그 결과물로 쓴 글, 만든 노래들을 저자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초청하여 직접 들려주는 시간, 작은 음악회를 갖는다. 2013년 북 페스티벌의 메인 작가인 원유순 작가의 경우 2011년 북페스티벌 때도 메인작가로 함께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작곡 프로그램이 연계 되지 않던 때인지라 책을 읽은 호도애 친구들이 호도애 기자단으로 선생님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올 해의 경우는 노래까지 만들어져 있고 2년 전 호도애 도서관 친구들과의 북페스티벌에서 좋은 인상을 받으신 선생님은 자신의 집(경기도 여주 자택)으로 호도애 친구들을 초청하셔서 27명의 학생 및 가족들과 찾아 글을 발표하고, 노래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유순 작가는

직접 호도애 친구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날 저녁의 바비큐 파티는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⑥ 특별히 아이들이 제작한 노래들 가운데는 원유순 작가님의 작품을 주제로 한 노래들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있는데 이 노래를 제작한 의도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친구들이 부를 우리들의 노래 ‘작은 도서관 노래’를 공유키 위함이다. 이 모든 노래는 100% 아이들이 지은 시에 스스로 곡을 붙인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2014-2015년 전국 작은도서관축제 시 여러 곳에서 공식 곡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즐거운 도서관

윤영린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즐거운 도서관
 좋은 책 빌리고
 좋은 책 읽네
 도서관은 책 부자

C F G C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G C Dm G Am F

즐거운 도서관 좋은책 빌리고 좋은책 읽네

G C

도서관은 책 부자

음악 도서관

남가원

음악 도서관 음악 도서관
재미있는 음악 도서관
음악 도서관에선 무얼할까
피리를 불고 북도 치고
재미있는 음악 도서관

음 악 도 서 관 음 악 도 서 관 재 미 있 는 음 악 도 서 관

음 악 도 서 관 예 선 무 얼 할 까 피 리 를 불 고 북 도 치 고

재 미 있 는 음 악 도 서 관

도서관으로 가는 길

백에스더

도서관으로 가는 길
재미있고 신나는 길
도서관으로 가는 길
두근두근 신나는 길
오늘은 오늘은 어떤 책이 있을까
오늘은 오늘은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
도서관으로 가는 길
재미있고 신나는 길

도 서 관 으 로 가 는 길 재 미 있 고 신 나 는 길

도 서 관 으 로 가 는 길 두 근 두 근 신 나 는 길

오늘은 오늘은 어떤 책이 있을까 오늘은 오늘은 어떤 시간이 기다 리고 있 을 까

도 서 관 으 로 가 는 길 재 미 있 고 신 나 는 길

춤추는 도서관

장르아



도서관이 춤을 춘다
도서관이 춤을 춘다
아이들이 있으면
더 신나고 재미있다
책을 보는 아이들
숙제를 하는 아이들
도서관에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도서관이 춤을 춘다
도서관이 춤을 춘다

Music score for the song "춤추는 도서관" (Dancing Library). The score is written on a grand staf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The melody is simple and repetitive, with lyrics written below the notes. The lyrics are: 도서관이 춤을 춘다, 도서관이 춤을 춘다, 아이들이 있으면 더 신나고 재미있다, 책을 보는 아이들, 숙제를 하는 아이들, 도서관에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진다, 도서관이 춤을 춘다, 도서관이 춤을 춘다, 행복해 서 춤을 춘다.

- ⑦ 위의 프로그램은 호도애 친구들 가운데 많아야 9-15명이 프로젝트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많은 호도애 친구들의 참여를 위해 두가지 프로그램이 더 진행된다. 하나는 원유순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독후감상문 공모전이다. 호도애 북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2013년의 경우 6회 작가인 원유순 작가의 책 46권만을 중심으로 독서감상문 공모전이 진행된다. 대상 1명에게는 10만원의 장학금, 최

우수상 2명에게는 5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3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지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는 단행본 도서 1권씩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공모전 시상 작품 선정도 원작가가 해주신다.

- ⑧ 모든 호도애 친구들이 참여하는 나머지 행사는 원유순 작가가 직접 호도애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진행되는 강연회로 이 때 독서감상문 공모전 시상식도 동시에 진행된다. 원 작가님께서 강의 중에 바이올린도 준비하셔서 진정한 북콘서트로 진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호도애도서관을 찾는 작가님들은 모두 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시게 되는 듯하다. 그 분들의 품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호도애 도서관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하는 준비된 만남이기에 그 감동에 작가들에게도 전달되는 듯하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호도애의 프로그램 모토는 ‘준비된 만남’이기에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날의 만남을 위해 호도애 친구들과 3-4개월을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날의 주인공은 원유순 작가도 선생님들도 아닌 우리 호도애 친구들이다.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시간에도 반영되는데 3시간의 행사 중 1시간 원유순 작가의 강의 시간이고 나머지 두 시간은 우리 호도애 친구들이 그 간 과정 속에서 진행한 것들..글을 나누고, 노래를 나누고...그것들을 자신들이 주제로 삼고 진행해 온 작가 바로 앞에서 나누는 것이다. 이 순간은 단순 추억의 시간을 넘어 자신이 진행해 온 학습의 결과, 그 성장과 진보를 다른 이들 앞에 내어 보이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 얻게 되는 동기는 이후 독서문화 활동을 진행해 감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되어준다.❖

<자료 1>

호도애	금 토 일
자녀교육 & 양육일지	

날 짜	년 월 일 (토)	생 후	년 일 / 총 일
토 오늘 하루	📖 Main Book : 👉 Main Play : ✍ Story :		

날 짜	년 월 일 (금)	생 후	년 일 / 총 일
금 오늘 하루	📖 Main Book : 👉 Main Play : ✍ Story :		

날 짜	년 월 일 (일)	생 후	년 일 / 총 일
일 오늘 하루	📖 Main Book : 👉 Main Play : ✍ Story :		

<자료 2>

十進 理論		금주의 어휘		금주의 문장	
소 통 疏 通		부모와의 소통(疏通)			
		아이들의 소통(疏通)			
Today key word & key sente nce	어語 휘彙 력力				
	문文 장章 력力				
아이 알아가기 아는 만큼 사랑한다!					
마음을 담은 Lover Letter					
날짜	년	월	일	장소	소요시간

<자료 3>

학습 년 월 일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스포츠이야기		600 예술	690 스포츠
		692 체육학 스포츠	
제 1 장	월드컵		
03	현재 월드컵대회의 우승컵은 줄리메컵인가요, 피파컵인가요?		
핵심 키워드			
주 제			
요약			
새롭게 알게 된 사실			
04	월드컵 16강에 오르는 게 정말 어려운가요?		
핵심 키워드			
주 제			
요약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자료 4>

학습 년 월 일

책제목					
판쇄		초판일		출판사	
KDC				페이지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 국가, 사상, 그의 작품 등					
저자소개	이름			나이	
	나라			역자	

예측 상상읽기	표지그림을 통한 예측상상읽기	
	제목을 통한 예측상상읽기	
목차를 통한 예측상상읽기		

배경읽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	
핵심 어휘읽기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이유는?	
책의 주제읽기		
작가의 주장읽기		

스키마 읽기 책 읽을 때 떠오른 것들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느낌쓰기			
	핵심 스키마		
내용지식 깨달음 읽기	1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나의 느낌과 깨달음	
	2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나의 느낌과 깨달음	
	3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나의 느낌과 깨달음	
	4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나의 느낌과 깨달음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지식 질문 핵심 내용읽기	1	
	2	
	3	
	4	
생각이해 ■ 가정읽기	1	만일 내가 주인공 ()라면(였다면) 것이다.
	2	만일 내가 ()한 상황이었다면 것이다.
	3	만일 내가 ()한 상황이었다면 것이다.
	4	만일 내가 저자라면 것이다.
생각이해 ■ 관계적용 질문	1	
	2	
	3	
	4	

그림으로 요약읽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인물읽기	1		성격			
			역할/관계			
	2		성격			
			역할/관계			
	3		성격			
			역할/관계			
	4		성격			
			역할/관계			
	5		성격			
			역할/관계			
비판읽기	작가의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장				
		이유				
		나의 표현				
	작가의 생각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의 주장				
		나의 생각				

궁금해요 ? 의문읽기	1	의문	
		탐구	
	2	의문	
		탐구	
디베이트 토론읽기	1	토론주제 1	
	2	토론주제 2	
창의읽기	내가 붙인 책 제목		제목 : 이유 :
	추천사 이 책을 추천합니다!		추천사 신문광고 문구 :

종합 읽기	주제 :					
	개요 Out Line	서론	1	2	3	4
		본론	1	2	3	4
		결론	1	2	3	4

종합 읽기 독 후 감 상 문	제목 :

<자료 5>

날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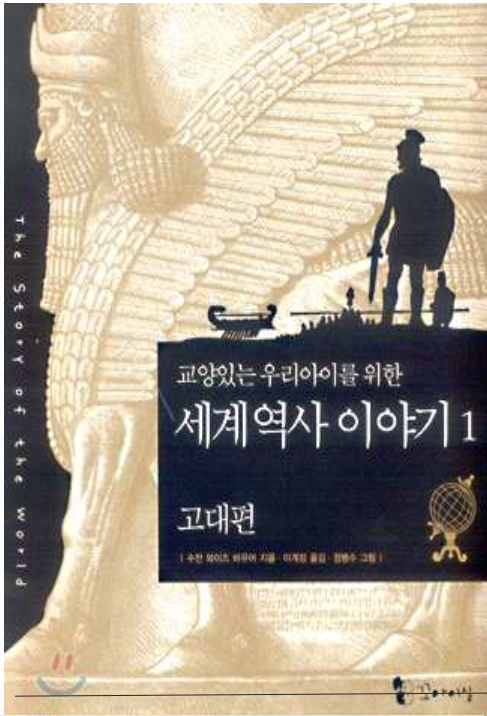
년

월

일

장소

소요시간



호도애 Q·T

(Hodoe Question Thinking)

질문·사고 독서요약지



고대편~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요약 워크샷

<자료 6>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역사이야기		고 대 편	
제 1 장	초기 유목민의 생활		
핵심 키워드			
주 제			
1부	떠돌이 유목민		
요약			
2부	강가에 정착한 유목민		
요약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나의 느낌과 깨달음			

<자료 7>

지인지기 전집			990 인물학습
1	인물	책명	독서 일자
	공자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핵심 키워드	
		는	
	사람이다.		
2	인물	책명	독서 일자
	원효	백성 속으로 들어간 새벽 스님	
		핵심 키워드	
		는	
	사람이다.		
3	인물	책명	독서 일자
	장보고	섬 소년, 해상 무역왕이 되다	
		핵심 키워드	
		는	
	사람이다.		
4	인물	책명	독서 일자
	왕건	후삼국을 통일한 영웅	
		핵심 키워드	
		은	
	사람이다.		
5	인물	책명	독서 일자
	칭기스 칸	초원에 핀 대제국의 꿈	
		핵심 키워드	
		은	
	사람이다.		

프로그램 우수사례



>>> 수도권

■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 반딧불도서관

서정우 / 고양 반딧불도서관 관장

■ 도서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 새싹작은도서관

박혜영 / 광명 새싹작은도서관 사서

>>> 경상권

■ 사업 공모 프로그램 활성화 : 가온누리작은도서관

김정숙 / 울산 가온누리작은도서관 운영자

■ 청소년 자기도전 성취포상제 활성화 : 꿈의샘터도서관

김미나 / 부산 꿈의샘터도서관 관장

>>> 전라권

■ 재능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 기차길옆작은도서관

이유미 / 완주 기차길작은도서관 실무자

>>> 충청권

■ 이야기둘레길 프로그램 활성화 : 북면바로네작은도서관

박현이 / 천안 북면 바로네작은도서관 사무장

〈수도권〉 반딧불도서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활성화

서 정 우
고양 반딧불도서관 관장

1. 설립일 및 설립배경

어느 날 새에 우연히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학교 공부에 매진하여도 부족할 터인데 새벽이 되도록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도서관에서 봉사하게 하려면 우선 수요처 등록과 봉사할 수 있는 일감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봉사자들에게 단순히 책이나 정리하고 청소나 하는 봉사보다는, 봉사를 하며 무엇인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얻어가는 그런 봉사를 하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것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인 미취학 자녀들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숙제도 도와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동화책도 읽어주는 봉사를 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반딧불도서관은 2012년 3월에 설립하여, 고양시에 작은도서관 등록은 동년 9월 7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수요처로 등록하였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수요처로 등록을 하고 처음 봉사 오셨던 분은 여행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봉사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봉사

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어린이 여섯 명과 봉사자 한 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학습지도나 책들을 읽으러 오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때는 봉사자 1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일 년에 1,300여명이 넘는 학생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을 펼치는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반딧불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구비하였습니다. 특히 사고(思考)할 수 있는 인문학 분야의 책, 자연과학 분야의 책, 연구 자료에 관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도움이 되는 책들을 구입하고 싶어서입니다.

시설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시설과 작은 공부방 2개, 도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책들이 약 2만권 정도 됩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이 유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2대, 지역주민들의 팩스 대행을 위하여 복합기 1대, 영화 상영이나 특강이나 재능발표를 위하여 빔 프로젝트 1대, 간이 의자를 포함하여 50석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관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387명, 도서관 이용자 수는 일평균 20명 내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녀들과 학생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는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각 특기별로 구성된 동아리, 5회, 매주 일요일 에도 2시간 동안 5회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도서관의 정기적인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학생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구성하여 오는 학교 동아리 모임을 포함하면 실제로 운용되는 프로그램 횟수는 유동적이어서 더 많이 늘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600회가 넘습니다. 매주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이나 사진을 그 주에 카페에 올려 검색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 운영의 주안점

반딧불도서관이 위치한 곳은 행신동에서도 취약지역입니다. 임대아파트와 오

래된 연립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구들 마다 소득도 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원에도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놀이터나 거리에서 그냥저냥 지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도서관에 데리고 와서 학습지도나 영어 책을 읽어주고 수학을 가르치고 놀아도 줍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오는 셈입니다. 학부모들에게는 과외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봉사시간을 채우게 되는가 하면, 봉사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반딧불도서관의 특징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담배꽂초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 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자원봉사자들을 30여 명씩 동원하여 2시간 동안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담배꽂초도 줍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가치도 있습니다. 봉사를 마치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백해무익”에 대하여서도 교육합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담배꽂초를 줍는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전달하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요청하면 무료로 줍니다. 사진에 첨부된 것처럼 작년에는 벽화를 그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서관 입구에 있는 출입문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올해도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도움이나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딧불도서관은 학생자원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기적으로 도서관신문을 홍보용으로 제작합니다. 글을 쓴 학생의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도서관 신문을 발송하여 주게 되면 학생도 학교도 반가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결과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곡식을 열심히 돌본 농부에게 결실의 가을에 반드시 보상을 하듯이, 새싹 때부터 성심껏 보살펴 주게 되면 보살펴주는 사람에게, 혹은 사회에게 좋은 쪽으로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어울릴 때 인격도 바람직하게 형성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봉사 경험을 쌓게 하고, 사회에서 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는 좋은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동시에 책임입니다.

4. 비전 제시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격언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노인의 희로애락의 삶이 다음 세대에 바람직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말이겠지요. 학생봉사자들과 우리가 비록 혈육을 나눈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서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큰 꿈이 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아직은 사회성에 대하여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사회적 방향 감각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중에 있는 학생자원봉사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학생자원봉사자들이나 어린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는가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역량을 저들에게 전수하여 주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어, 바람직한 일들을 선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른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다고 한다면 자라나는 새싹들의 마음은 아주 작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과격하게 대한다면 다거나 방치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질그릇과 같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하고 깨져 버려 아무짝에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새싹들을 방치하게 되면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병영생활에서는 “관심병사” 사회에서는 “문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운영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결국 도서관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역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다듬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일입니다. 반딧불 도서관의 특징을 말하라면 도서관의 수식어처럼 “배움과 지식 탐구의 전당”입니다. 책을 통하여 지식을 쌓아가게 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세계를 두 어깨에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둥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지구의 인적 자산입니다. 저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자라나는 새싹들을 지식의 기름

진 토양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므로 사회에 환원하는 일입니다.

5. 프로그램 운영 안내

프로그램	대상	진행자	내 용
수학 Game	누구나	수학 게임 동아리	사칙연산
영어 구연동화	누구나	영어 구연동화 동아리	영어동화책 읽고 말하기
책으로 배우는 과학	누구나	책으로 배우는 과학 동아리	과학실험
영어야 놀자	누구나	영어야 놀자 동아리	영어노래
재능 자들의 재능 펼치기	누구나	재능 자들의 재능 펼치기 동아리	장기자랑, 종이접기 등
학교에서 구성된 동아리 운영	누구나	학교에서 구성된 동아리	학교 동아리 운용

※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5회, 매주 일요일 2시간 동안 5회 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도서관의 정규적인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직접 구성하여 오는 학교 동아리 모임을 포함하면 실제로 운용되는 프로그램 횟수는 유동적이며 년 간 600회가 넘습니다. 매주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이나 사진을 그 주에 카페에 올려 검색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6. 사진으로 보는 프로그램



중국어배우기



청심국제고 영어동화책읽기



그림 그려 동화책만들기



수학게임 진행



영어 구연동화



어린이 동화책읽기 대회



제임스가 영어책을 읽고
봉사학생이 통역



딸은 책을 읽어주고 엄마는
도우미

아파트정자에서 책읽어주기		코끼리유치원 반딧불도서관 방문
잠만경 만들기	자수정으로 모형만들기	DNA모형 만들기
교육컨설트 서울중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특강	UN의 ASPIRE 한국창년들이 반딧불도서관을 방문, 자구촌 미래의 주역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지녀야 할 바른 가치관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음	
반딧불도서관 지역의 환경정리		



반딧불 도서관이 주관하여 동네의 낯은 벽에 벽화그리기



2년 동안 도서관 신문을 만들었던 김채은 학생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장을 받다.



행신 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반딧불 도서관이 업무 협약을 맺다



반딧불 도서관 멘토도서관으로 선정 사업설명회 및 멘토링 워크숍

〈수도권〉 새싹작은도서관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박 혜 영
광명 새싹작은도서관 사서

1. 설립일 및 설립 동기

- 2006.05. 광명시 위스타트 새싹마을과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광명시 위스타트 사업의 하나로 설립되어 저소득층 대상아동들과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해오다가 2014년도에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이월되었다가 2015년 7월부터 광명시립 하안도서관이 주무부서로 하여 광명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으로써, 저소득 및 취약계층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자율적인 사고능력을 고취하고 독서능력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돕고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작은도서관의 현황

- ① 운영주체 : 하안종합사회복지관
- ② 위 치 :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신관B동 2층

- ③ 이용 대상자 : 지역사회 모든 주민
- ④ 자료 열람 방식 : 개가제 (이용자 파악을 위해 관내열람이용자 목록 작성)
- ⑤ 대출서비스 : 광명시 통합도서관 회원
- ⑥ 운영 시간 : 화~토 10:00~18:00 매주 일,월,공휴일 휴무
- ⑦ 일일평균 이용자 : 40명

3. 운영의 주안점

- 아동 및 지역사회 모든 이용자들의 독서활동 중심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각 연령대에 맞는 도서를 구비하여 배치하고 관내 열람서비스 및 회원제 대출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이용자들에게 독서동기를 유발하고, 도서관이용과 독후활동을 장려하고자 독후활동지와 독서통장을 비치하고 관리합니다.
- 이용자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올바른 독서생활을 지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점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동화구연, 스토리텔링, NIE, 영화감상, 성인독서동아리 등 상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지고 올바른 여가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서관주간행사, 방학특별프로그램,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4. 알찬 프로그램 운영실적(2015.8.~2016.8.)

순	프로그램명	실시기간	프로그램내용	참여대상	참여인원	비고
1	책이랑 놀자	연간 월1회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동화이야기	유아, 초등저	3~5명/회	재능기부
2	신문으로 세상 보기	연간 월1회	신문활동활동(NIE)	6세~초등	3~5명/회	사서진행
3	새싹영화관	연간 월1회	애니메이션 영화상영	누구나	5~10명/회	
4	책이랑 영어랑	연간 월1회	언니가 읽어주는 영어그림책	유아 초등저	3~5명/회	재능기부
5	독서놀이터	6월~10월	2개반 각월2회 진행. 자기주도적 독서활동	초1-3/4-6	12명/5명	하안도서관 감사지원
6	책읽는 엄마모임	연간 월2회	성인독서토론동아리	성인	15명	
7	2015 여름 방학 프로그램	2015.7/25~8/22	특강(도예활동) 영어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영화상영 독서왕 시상	유아 초등 학부모	260명	시보조금 재능기부
8	2016 겨울 방학 프로그램	2016.1/4~30	체험활동/독후활동 영어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영화상영	유아 초등 학부모	340명	비예산 재능기부
9	2016도서관주간 기념행사	2016.4/12~29	도서관견학프로그램 독후활동/도서관퀴즈 샌드아트공연	아동 학부모	550명	시보조금
10	2015독서의 달 기념행사	2015.9/1~30	독후활동대회 독서퀴즈/책속한줄 원화전시 시상식 및 뮤지컬공연	아동 학부모	440명	시보조금
11	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2016년3월 ~11월	마지막주 수요일 작가강연/책놀이,연극놀이활동 등	아동 성인	20명/회	공모
12	2015 독서 문화 프로그램	2015.10/13~27	책으로 만나는 어린이 인권이야기 2개반 각반 3회	유아/초등	10명/12명	공모
13	2016 여름 방학 프로그램	2016.7/30~8/20	특강(역사북아트) 영어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영화상영	유아/초등 학부모	400명	시보조금 재능기부
14	도서관에서 여름밤을	2016.7/29~8/19	청소년봉사단교육,인문학특강,체험활동,영화상영,가족독서활동	청소년 성인 아동	110명	공모

5. 자료로 보는 프로그램

11월의 새싹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책이랑 놀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이야기 	유아 및 초등저학년	11월 6일(금) 오후4시
신문으로 세상보기	신나는 신문활용활동(NIE) 	6세 ~ 초등저학년	11월 13일(금) 오후4시
새싹 영화관	볼 만해, 우리가 친구들! 슈퍼배드2 	관심있는 아동 및 학부모	11월 20일(금) 오후4시
책이랑 영어랑	엄니가 읽어주는 즐거운 영어그림책 	유아 및 초등저학년	11월 28일(토) 오후2시

★ 시간에 맞추어 도서관으로 오시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도서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새싹작은도서관

12월의 새싹작은도서관 Merry Christmas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책이랑 놀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이야기 	유아 및 초등저학년	12월 4일(금) 오후4시
신문으로 세상보기	신나는 신문활용활동(NIE) 	6세 ~ 초등저학년	12월 11일(금) 오후4시
새싹 영화관	세(사)랑 신드비까지 있다 와이브 그랜드 	관심있는 아동 및 학부모	12월 18일(금) 오후4시
책이랑 영어랑	엄니가 읽어주는 즐거운 영어그림책 	유아 및 초등저학년	12월 26일(토) 오후2시

★ 시간에 맞추어 도서관으로 오시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도서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 새싹작은도서관

2월의 새싹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책이랑 놀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이야기 	유아 및 초등저학년	2월 5일(금) 오후4시
신문으로 세상보기	재미있는 신문활용활동(NIE) 	6세 ~ 초등저학년	2월 12일(금) 오후4시
새싹영화관	관심있는 누구나 2017년 최고의 영화 지구를 지켜라 	관심있는 누구나	2월 19일(금) 오후4시
책이랑 영어랑	엄니가 읽어주는 재미있는 영어그림책 	유아 및 초등저학년	2월 27일(토) 오후2시

※ 시간에 맞추어 도서관으로 오시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 새싹작은도서관

3월의 새싹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책이랑 놀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동화이야기 	유아 및 초등저학년	3월 4일(금) 오후4시
신문으로 세상보기	재미있는 신문활용활동(NIE) 	6세 ~ 초등저학년	3월 11일(금) 오후4시
새싹영화관	관심있는 누구나 2017년 최고의 영화 본즈 오브 맨 	관심있는 누구나	3월 18일(금) 오후4시
책이랑 영어랑	엄니가 읽어주는 재미있는 영어그림책 	유아 및 초등저학년	3월 26일(토) 오후2시

※ 시간에 맞추어 도서관으로 오시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 새싹작은도서관



독서놀이터(6월~10월 총20회)



책읽는 엄마모임(연간 월2회 총20회)



여름방학프로그램(2015.8월)



겨울방학프로그램(2016.1월)



도서관주간기념행사(2016.4월)



독서의 달 기념행사(2015.9월)

8월의 새싹작은도서관

★ 시간에 맞추어 도서관으로 오시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시
책이랑 놀자!	 할머니가 들려주는 즐거움 동화구연	유아 및 초등저학년	8월 7일(금) 오후4시
신문으로 세상보기	신나는 신문활용수업 (NIE) 	6세 ~ 초등전학년	8월 14일(금) 오후 4시
새싹영화관		관심있는 아동 및 학부모	8월 21일(금) 오후4시
책이랑 영어랑	 언니가 알려주는 재미있는 영어그림책	유아 및 초등저학년	8월 29일(토) 오후2시

새싹작은도서관

책과 친해지는



독서놀이터



참여아동모집안내

★누가? 초등1-3학년(A반), 초등4-6학년(B반)

★언제? 2016년 6월 8일~10월26일 (6월은 8일을 1주차로 합니다.)

A반- 1,3주 수요일 오후4시30분 (총 10회)

B반- 2,4주 수요일 오후4시30분 (총 10회)

★어떻게? 사전접수 5월31일(화)~정원 (A반12명, B반10명) 마감시

※ 저소득층아동 우선접수입니다.

※ 책임있게 참여할 어린이만 신청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자기주도적 독서활동프로그램입니다.



★ 문의 및 참여 : 새싹작은도서관(하안13단지 주민회관2층 ☎2680-6219)



새싹작은도서관

〈경상권〉 가온누리작은도서관 사업 공모 프로그램 활성화

김 정 숙
가온누리작은도서관 운영자

1. 설립 연월 및 동기

- 가온누리 작은도서관은 2011년 11월에 설립
-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마을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
- 아파트 내 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여 독서의 생활화 실현
- 도서관을 이용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 작은도서관 현황

1) 현황

- 평일 : 14:00-18:00 / 토요일 10:00-16:00
- 운영진 : 관장 1명, 운영자 1명, 초등도서관회원 관리자 1명
- 평일 봉사(성인) : 6명
- 평일 봉사(노인인력창출사업) : 2명
- 주말(가족)봉사 : 12팀(30명)
- 도서관 초등회원 : 매일 상시 30명
- 공동육아프로그램 참가자 : 매일 상시 약 120명

2) 연혁

- 2012년 울산 북구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엠코 가온누리 작은도서관으로 재개관)
- 2013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선정 - 울산 북구청 주민자치과
- 2014년 '찾아가는 우리동네 지식강좌' 유치 - 울산 북구 평생교육센터
- 2014년 4월 도서주간행사, 9월 독서의 달 행사 진행 - 울산북구청 도서관과
- 2013년~2015년 3년 연속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참여 - 울산 북구청 건축 주택과
- 2015년 '울산광역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공모 · 선정 - 울산시청 여성청소년과
- 2015년 '제2회 울산 북구 책잔치' <맑은 하늘 이제 그만> 부스 운영 - 울산 북구청 도서관과
- 2015년 중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선정 - 울산 중부도서관
- 2015년 4월 도서주간행사, 9월 독서의달 행사 진행 - 울산 북구청 도서관과
- 2015년 '2015년 세종도서 문화나눔' 선정 - 한국출판문화진흥원
- 2016년 '울산광역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진행 중 - 울산시청 여성청소년과
- 2016년 '2016년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협력 업체로 공모 사업 선정 - 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원

3. 운영 주안점

- 1) 모든 주민의 독서 활동 지원
- 2)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
 -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함께 하는 공동육아
 - 일자리 창출 : 노인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인력 우선 채용
- 3) 엄선한 양서 비치 : 좁은 공간의 효율성
- 4) 재원 확보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참여율 높임, 공동체 활성화

5) 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

- 일률적이고 수동적인 행정 복지에서 벗어나 마을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자 함.

4. 예산 및 자원 조달방법(2015년 기준 : 총 5,000만원)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커뮤니티 활성화 기금) : 연간 410만원
- 울산 북구청 도서관과(네트워크 도서관 지원금) : 연간 1,040만원
- 울산 시청 여성청소년과(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비) : 연간 3,000만원
- 북구청주택건축과(공동체활성화사업-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 500만원
- 기타 지원 사업 공모 · 선정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통합문화예술교육업체 나르샤, 울산중부도서관 프로그램&수선용품지원, 울산평생교육원 찾아가는 지식강좌 등 유치)
- 자조적 조달 : 벼룩시장, 콘서트 미니매점 등 행사 수익금(약 50만원)

5. 공격적 가온누리작은도서관이 된 이유

다년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으로는 너무 가까운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들은 충분히 마을 기초 종합 복지 센터의 역할 모델로써 마을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선진국형 맞춤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또한 운영팀 간의 믿음과 자신감도 열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공동육아**는 복지의 가장 기본 형태이며, 모든 가정에 골고루 도움이 되며, 작은도서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분야

현 정부 또한 돌봄서비스를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장 일선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약1,800명이 넘을 정도로 행정 서비스로는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 예로 2015년 초등 돌봄서비스는 오히려 축소되어 모든 맞벌이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고, 그마저도 오후 5시까지로 제한이 있으며, 학교에서 늦은 시간 혼자 귀가로 인한 학교

통학로 범죄에 노출 우려되고, 또래 이웃과 어울릴 기회 뺏음으로 인해 맞벌이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 방과 후 교실 또한 인기 강좌의 경우 조기 마감이나 그 비용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대안인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등 30명 기준으로 정부지원의 경우 시설 당 월 556만원(식대별도)가량이 지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비용이 시설비나 인건비로 지출되고, 아동 1인당 돌아가는 교육 혜택 비용은 27,000원으로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고, 게다가 아동이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왕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작은도서관은 이같이 다원화된 돌봄서비스를 마을 내 시설을 이용하고 도서관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면에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독서를 통한 도서관 마을 공동 육아로 단일화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온누리 한 달 운영비 : 320만원 / 아동 1인당 최대 교육 수혜 비용 : 8만원)

또한 하교하자마자 교육과 돌봄이 마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늦은 시간 이동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단지 내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또래 이웃들 간에 공동 문화를 형성할 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공동육아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초등 돌봄(매일30명) : 간식 제공, 독서활동 및 독서록 지도, 독서왕 선발, 수학 기초 연산, 공예 프로그램, 방학 자율 과제 수행
- 공동 육아 프로그램 운영(매월 119명) : 영어, 논술, 교구수학, 역사, 한자, 실험과학, 바이올린, 줄넘기
- 체험학습, 마을 내 문화 예술행사

2) 공동체 문화 형성의 구심점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매력

특히,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피드백 작업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좋은 성과였습니다. 이에 운영진은 공동육아에 그치지 않고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웃 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영화상영, 명랑운동회, 한여름밤의 돛자리 콘서트, 샌드아트 콘서트, 매직 사이언스 콘서트, 각종 인형극, 체험학습 여행, 도서관설명회 및 크리스마스 행사, 각 세대별 맞춤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모든 행사 무료)

3) 주민들의 삶에 직접 도움을 주고자

작은도서관이 독서의 생활화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에도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은 공동 육아프로그램을 통한 육아 보조와 일자리 창출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각종 사업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직장에서 은퇴하였거나 특기를 가진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육아프로그램 강사 및 초등도서관회원관리, 운영자, 사업 코디네이터, 노인 일자리 창출 등)

4) 공격적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극적인 제원 확보가 필수였습니다. 도서관 지원금이나 자조적 비용창출로는 생활수준이 높아진 주민들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행정서비스로는 불가능한 주민자치사업을 공모하는 행정 기관들이 눈이 띄었고, 저희 가온누리 작은도서관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 내용이 더욱 풍부해 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유치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수 비교>

	진행 내용	이용자수 (인원/해당월)	대출자수 (인원/해당월)	대출권수 (인원/해당월)
2012년 10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지정	209명	89명	286권
2015년 7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운영 +가족친화마을만들기사업	900명	380명	1,141권

물론 이렇게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인력입니다. 많은 도서관들이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로서 인력을 도서관에 배치하거나, 자원봉사만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시간 때우기 식의 부실 운영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순수 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희생정신보다는 투철한 책임감과 다양한 특기를 가진 사람들(작은도서관 운영자, 사업 코디네이터, 초등돌봄교사)입니다. 팀을 이루어 매일 각자 맡은 바 일을 함과 동시에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하고, 보조 인력(노인일자리 창출사업(노인), 자원봉사(성인), 주말봉사(가족))의 도움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였습니다.

6. 운영 프로그램(2015년 기준)

1) 상시 운영 프로그램

① 상시 초등 도서관 회원 관리

- 비용 : 무료 / 관리 인원 : 매일 30명
- 간식제공, 독서지도(학년별 필독서 선정 관리), 독서록 작성&대출 스티커, 독서왕 선정, 방학 자율과제 수행, 또래 이웃 간의 공동체 문화 형성

② 상시 초등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용: 월 5,000원 / 이용인원 : 월평균 약 120명
- 주중 방과 후 8과목 15시간 운영 : 방과 후 강사 수준 이상
(영어, 교구수학, 바이올린, 실험과학, 창의역사, 국어논술, 줄넘기)

③ 유아 프로그램 상시 운영(레고 닥타, 요리, 로봇, 퍼포먼스 영어 등) : 유료

④ 영화 상영(무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⑤ 마을 내 도서관 홍보 행사 : 간식 나누기

⑥ 사업설명회 및 소식지 발행(우편함 배부)

2) 월별 진행 행사

월별	행 사 명	내 용	세부사항
4월	도서주간행사	요리쿡조리쿡(아동)	울산 북구청 도서관과
		네일아트(성인)	
6월	울산시청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선정	부제 : 공동육아 프로젝트 방과 후	울산시청 여성청소년과
7월	벼룩시장 & 북 카페	먹거리 판매=>도서구입비 마련	
	김해역사탐방(가족)	대가야 박물관, 김해 천문대, 물놀이 등	가족친화마을만 들기 시범사업
	‘찾아가는 지식강좌’선 정	방학 중 독서 클레이	울산 중부도서관
	미디어 교육 시작	서터 속 세상(아동)	통합문화예술 교 육 나르샤
8월	영화관람(삼산CGV)아동	현 아파트의 물리적 특성 고려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명랑운동회	북구 주택건축과
	한 여름밤의 돛자리 클래식 콘서트	영상 상영 & 클래식 팀 공연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미니 매점 운영	
9월	대구 체험학습(아동)	리틀소시움&허브힐즈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독서의 달 행사	사이언스 매직 콘서트(아동)	북구 도서관과
		도서관에서 하룻밤(아동)	
		샌드위치 만들기(경로당)	
		소이캔들 만들기(성인)	
10월	공주, 부영 역사탐방 (청소년)	전문강사와 떠나는 역사탐방 무령왕릉, 부소산성, 박물관, 낙 화암, 백마강 유람선 승선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제2회 울산 북구 책잔 치 -부스운영	<맑은하늘이제그만>동화책을 영 상을 통해 읽어보고 풍력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하며, 에너지 절약 에 대해 알아봄.	북구청 도서관과
	벼룩시장	자원 재활용 및 경제 교육	
	엄마들의 수다여행 (주부-조부모 육아포함)	육아로 지친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토함산 산행 및 통일전 은행나무 길 산책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12월	사업설명회&저녁뷔페	사업설명회(부모)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가랜드만들기(아동-자원봉사)	
		저녁뷔페(가족)	
	소식지 발행(홍보)	2015년엠코이야기 발행(우편함배 포)	

경상일보

[로그인](#) [회원가입](#)

[홈](#) > [뉴스](#) > [울산사람들](#) > [울산사람들](#)

울산시 북구 신천엠코타운 가온누리작은도서관, '한여름 밤의 뾰족자리 콘서트' 개최

2015년 08월 30일 (일)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울산시 북구 신천엠코타운 가온누리작은도서관은 지난 29일 아파트 배드민턴장에서 아리랑 앙상을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영화·뮤지컬 주제곡들을 선사하는 '한여름 밤의 뾰족자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울산시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동육아 방과 후 프로젝트'중 하나로 마련됐다.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로그인](#) [회원가입](#)

〈경상권〉 꿈의샘터도서관 청소년자기도전성취포상제 활성화

김 미 나
부산 꿈의샘터도서관 관장

1. 설립일 및 동기

샘터꿈의도서관은 2001년 7월 7일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세워졌다. 삭막한 도시의 회색빛 그늘이 드리워진 동네 아이들에게 책으로 숲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또한 훌륭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동네 아이들이 좋은 책 속에서 꿈을 찾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스스로 배워서 열악한 현실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다. 도서관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의 날개를 펴고 훨훨 날 수 있는 자유로운 터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 작은도서관의 현황

샘터꿈의도서관은 ‘책 속의 놀이터’, ‘책의 숲’이 될 수 있도록 실내를 꾸몄다. 바닥은 갓난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뒹굴면서 책읽기를 할 수 있도록 온돌 마루로 만들었고, 서가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꾸몄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은 무료, 대출은 가입한 회원(개인/가족)에게 가능하도록 했다. 공간은 156㎡, 열람석은 30석, 2,500여권으로 시작한 책이라는 나무는 어느새 15,000여권의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가 12,000여

권, 부모님을 위한 교육과 교양도서 3,000여권, 각 종 간행물 40여종 등으로 이루어진 숲에서는 오늘도 맑은 샘이 흘러넘친다.

3. 운영의 주안 점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모의 자녀학대 사건들, 무너진 교권과 교실에서의 욕설과 폭력 등 비정한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학교나 학원에서 지식중심교육과 성적, 입시경쟁에 내몰린 세대에게 작은도서관은 사회화와 전인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찾아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도 도서관은 발길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하고 약속한 시간에는 어김없이 열어 두어야 한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가 바로 거기 있을 때, 그곳은 희망의 자리가 된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비록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찾아들지 않아도 그들이 꼭 필요할 때 책 속에서 쉴 수 있게 해 주고 싶은 꿈에는 변함이 없다.

4. 비전제시

우리는 이런 꿈을 꾀다. 학교 안팎과 아이들이 지나는 길목에 그들을 볼모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과 아이들의 꿈을 결박하는 학원이 사라지고 동네 구석구석마다 아이들의 문화공간이면서 꿈을 키우는 작은도서관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을 말이다.

‘너희는 도서관에서 자라는 행복한 아이들이란다. 위대하게 살다간 분들의 숲을 거닐거라. 아름다운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위대한 꿈을 찾거라. 그리고 너희들만의 아름다운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 가거라.’ “작은도서관이 희망이다”

5. 알찬 프로그램 운영

1) 운영 프로그램 경과

샘터꿈의도서관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었다. 샘터꿈의도서관은 개관 초기(유아기)에는 독서의 즐거움, 행복한 책읽기, 책과 친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독서학교, 방학 중 독서캠프, 책과 만나는 산책길 등 주로 도서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도서관의 발전기(아동기)에는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도서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행복한 공원도서관(공원 이동도서관)’, 도서관 아이들의 마을가꾸기 봉사활동, 체험 및 탐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강화했다.

도서관의 성숙기(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기존 독서활동은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은 물론 지구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진행해 온 ‘유럽비전트립(11회 진행)’, ‘희망아시아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시아 공정여행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2013년에 캄보디아에 작은도서관 설립,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 바자우족 어린이를 위한 수상학교 건립을 도서관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했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에 ‘두발세발(두 발로 세상을 발견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의 갈맷길 코스를 걷는 프로그램을 통해 체성, 심성, 감성, 자연친화력, 회복탄력성,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 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근래에 들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엮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지구 시민을 양육하는 작은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청소년자기도전성취포상제, 국제성취포상제

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은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등의 영역 스스로 활동 및 성취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여 균형 있게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인증 프로그램이다. 각 성취포상제는 도전하는 청소년의 연령과 국내형, 국제형으로 나뉘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진흥원에서 승인과 심의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전하는 기간에 따라 금장, 은장, 동장을 수여하는 포상제이다.

샘터꿈의도서관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독서활동(독서학교)과 봉사활동(마을가꾸기), 신체활동(두발로 세상을 배우는 여행) 등을 연결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현재 20여명이 참여 중이다. 도서관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전분야를 자기주도적 확장해 나가고 있다. 원활한 활동의 진행과 인증을 위해 샘터꿈의도서관은 청소년자원봉사 터전(2009년~), 성취포상제 운영기관(201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2016년~)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고 있다.

6. 홍보자료



〈전라권〉 기차길옆작은도서관 재능기부프로그램 활성화

이 유 미
완주 기차길작은도서관 실무자

1. 설립일 및 동기

2009년 3월 6일 개관하여 완주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군립작은도서관

2. 작은도서관의 현황 (2016년 8월 현재)

기차길작은도서관은 2009년 3월 아파트 내에 조성되어져서 2013년 12월 상
관면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1만 2천권의 장서와 1,38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하루 평40여명의
이용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 군립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대차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운영의 주안 점

지역주민의 참여 기반에 작은도서관 운영방침에 중점을 두고 밀착형 유대관계
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에 노력,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이용객의 편의등을 우선시하고,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희망하는 목록 작성으로 우선 진행하며 도서구입도 희망도서를 우선으로 목록작

성하여 분기별로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시 5차 진행시 강사들의 1회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가들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화하고, 완주군에서 공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비 사업계획 및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도서관으로 정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4. 사례 및 비전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기차길작은도서관

2009년 3월에 개관할 당시 작은도서관은 재정적인 면과 운영 전반에 있어서 매우 열악했습니다. 찾아오는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좌절이 많았습니다. 세계우수그림책 전시회 및 사진전시회들을 개최했지만 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그들에게서 수필가, 퇴직교사, 퇴직공무원, 예술가등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정보를 얻고서 그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대부분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듯 설득을 반복하자 재능가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프로그램도 하나 둘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퇴직 영어교사의 방과 후 초등생 영어교실은 엄마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서로 하겠다고 앞 다투어 신청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애니메이션서 작가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작과정 및 상영회 까지 특강을 해주시고 토탈공예 자격증을 가지고으신 주부들은 리본공예를 시작으로 테디베어 냅킨아트 쿨트 인형 자수 등 등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력을 만들어주어 교육생들이 만든 작품과 함께 각종 행사에 전시회 부스를 마련해 주었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고 발전해가는 상생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기차길작은도서관은 언제든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능기부자들이 많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통해서 독서토론을 비롯해서 부모교육, 독서힐링, 냅킨아트, 테디베어공예, 호박인형공예, 켈트공예, 코바늘공예, 여름방학/겨울방학 독서교실 공예반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최근에는 독서회와 함께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던 것을 크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책사랑주부독서회, 작은씨앗(비법인단체), 켈트동아리, 토탈공예동아리, 줌마시네마스쿨 등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가운데 작은영화관 사업을 작은도서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결성된 줌마시네마팀은 ucc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받은 상금을 지역 불우 어르신들께 기부하는 아름다운 선행도 실천하셨던 멋진 줌마들입니다.

또한 기차길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주체인 비법인 단체 “작은씨앗”을 결성하여 전북도 및 완주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말가족프로그램운영(경주 역사와 문화속으로/3개월, 옛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백제/3개월)으로 역사수업, 역사탐방, 역사북아트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수업의 마지막 과정으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체험부스 운영으로 배움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뜻 깊은 장도 마련하여 주민들과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보람을 한층 크게 하였습니다.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궁중요리연구가를 초빙하여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통장류 및 전통음식을 체험하고 직접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교육생들의 요청으로 완주군 평생학습 지원과 강사님의 재능기부로 전통된장, 고추장, 간장, 조청, 김치 담그는 법등 우리의 전통음식과 옛 선조들의 지혜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뜻 깊고도 특별한 시간을 주민들과 만들어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기차길작은도서관의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알려지면서 벤키마킹을 하려는 도서관이나 단체의 방문과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도서관 조성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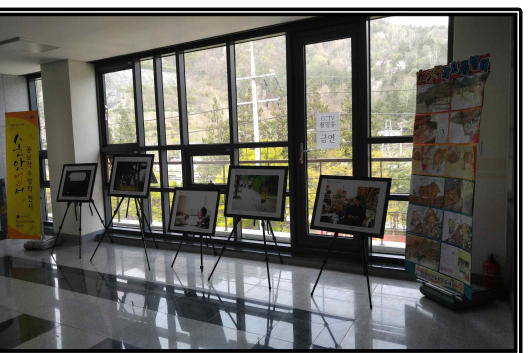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출판진흥원장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 어린이 도서 200여권을 전달하며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극찬하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도 도움을 받고자 노력중입니다. 또한 기차길작은도서관과 코레일과의 접촉으로 특성화도서관을 만들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도서관의 발전은 행정의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노력과 질 높은 프로그램 기획으로 찾아오는 작은도서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6. 활동 자료들







〈충청권〉 바로내 작은도서관 이야기둘레길 프로그램 활성화

박 현 이
북면 바로내작은도서관 사무장

1. 설립 년 월 및 동기

2014년 3월 설립. 북면바로내 작은도서관은 북면 주민들이 한 데 어울려 나누고 이해하고 만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배우거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열어놓고자 천안시와 북면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세운 독서문화 공간입니다.

2. 작은도서관의 현황 (2016년 8월 현재)

1) 일반현황

면 적	도서보유량	주 요 시 설	비 고
90㎡	3,814권	자료열람코너(30석) 전시공간	

2) 도서대출 및 이용자 현황

(일)	도서대출(권)	대출자(명)	전체이용자수(명)	
163	912 (1일평균) ⁶	296 (1일평균) ²	1,488 (1일평균) ⁹	2016.1.1.~8.31

3) 자료(도서) 현황

합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3,814	78	205	60	495	214	208	147	103	1,941	363

3. 운영의 주안 점

북면은 맑고 정감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형성된 시골마을공동체입니다. 북면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인문학적 자원을 찾아 활용하고, 마을사람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4. 비전제시

북면바로내작은도서관은

맑고 정감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과 다양한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 모두가 한 데 어울려 나누고 이해하고 만나는 공간입니다.

북면바로내작은도서관은

늘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인문학적 공간속에서 자유롭게 글을 읽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열어놓고자 합니다.

북면바로내작은도서관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공개된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5. 프로그램 운영실적

1) 개요

- 주사업명 : 북면이야기길1(2015년), 북면이야기길2(2016)
- 사업기간 : 2015.2~ 현재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마을

2) 사업내용

- 자연과 사람, 길과 마을, 가족과 나를 테마로 책 주제와 연관하여 옛 마을길을 걷는다.
- 지역사회의 인문학적 자원을 찾아 활용하고, 마을사람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Proper Job(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일)을 구현한다.
- 천안시민들에게 마을공동체와 만나는 다양한 계기와 공간을 마련한다.
- 대학생, 청소년들과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3) 년월별 사업운영내용

2015년

월	사업명	사업내용	참석 인원
4월	앤과 함께하는 봄소풍	『Anne』 낭독회 마을길 걷기와 숲에서 노래하기	51명
5월	15청년 표류기(2차)	『15소년 표류기』 강의 「길과 마을 형성」 북면마을길 모두 걷기(20km)	70명
7월	작은 책방	『작은책방』 독후신문 제작 부모교육 & 가족치료 프로그램 물놀이	36명
8월	달팽이의 별	한 여름밤의 영화제 다큐멘터리 두 주인공과의 만남	34명
9월	꿈을 찍는 사진관	북면노인장수사진 촬영 노인봉사와 스토리텔링	56명
9-11월 (8회기)	알록달록 우리 마을 만들기	청소년 대학생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탐방, 지도제작, 벽화제작	24명
10월	보고대회	보고대회, 사진과 캘리그래피 전시 벽화길 걷기(북면이야기길 리플릿 제 작)	120명

2016년

월	사업명	사업내용	참석 인원
3-7월 (7회기)	알록달록 우리마을 만들기	『오소리네 꽃밭』 청소년 대학생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탐방, 꽃밭 만들기 북면마을(5곳)에 꽃밭조성	30명
9월	오곡리옛이야기길	옛마을이야기_옛지명과 마을 옛지명 찾아 길 걷기 작은장터	52명

6. 활동언론보도

천안의 알프스 북면 옛 마을길 함께 걸어요!

천안시 중앙도서관, '북면 이야기길' 조성...오곡리 산길 이용 스토리텔링 공간 마련

정종윤 기자 송인 2015.03.02 20:16 댓글 0



▲ 올해 조성될 천안시 북면 이야기길 코스

많0

- 1
- 2
- 3
- 4
- 5

ANN 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DT 大田투데이
젊은 생각 · 바른 신문

종합뉴스 | 피플 | 오피니언 | 기획특집 | DTN방송 | 독자마당 | PDF보기 | SNS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법조·경찰·군사 | 과학·교육·문화 | 사람들 |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내포(충청, 예산)

종합뉴스
충남

천안시 북면 이야기길 오곡2리 아름다운 벽화길 조성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송인 2015.10.20 10:45:34



북면 옛 마을길, 벽화옷 입고 '새단장'

천안시, 오곡2리 6곳 벽화길 조성

김현규 기자 | always2011@naver.com



승인 2015.10.21



제주의 올레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멋진 풍광과 정취를 제공하는 천안의 알프스 북면의 옛 마을길 '북면이야기길'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겼다.

북면 바로내작은도서관에서 오곡리 산길을 거쳐 북면사무소까지 약 5km구간의 이야기길 중간에 위치한 오곡2리 6곳에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아름다운 벽화길이 탄생했다.

천안시 북면바로내작은도서관 자원봉사모임인 '씨앗'이 주최하고 천안시 중앙도서관과 북면사무소가 지원 및 후원으로 진행된 벽화길 조성에는 천안 KYC 벽화동아리, 알록달록 우리마을 만들기의 대학생 벽화동아리 '행복한 붓'과 김선화 목천고등학교 학생지도교사, 위례초등학교 학생 등 25명이 함께 참여했다.

그동안 바로내작은도서관은 북면이야기길을 만들며 이야기와 문화가 어우러진 색깔있는 길을 만드는 여러 행사를 열어 왔으며, 이번 오곡2리 마을 벽화길 조성도 색깔 있는 이야기길을 만드는 행사로 개최됐다.

오곡2리는 북면이야기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시민들이 걷기에 가장 좋은 코스로 알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벽화까지 조성되면서 이야기길을 걷는 맛이 한층 더해졌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북면이야기길 네 번째 초대] 작은도서관에서 만나는 '달팽이의 별'

2015-08-16 22:29:08 게재

이따금씩 북면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때로는 봄소풍을 떠나고 어느 날은 북면길 걷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만은 바빠 그곳으로 달려간다.

이제 풍광만으로 북면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어야 비로소 북면의 제 모습을 만나게 된다.

동경해 마지않는 그 아름다운 동네에는 걸치레 없이 투박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매일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며 살고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권역별 워크숍 설문

참여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귀하께서 성심 성의껏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을 제출하셔야 선물을 드립니다.)

▶ 해당 되는 번호에 “V” 표시나 간단하게 기록하여 주세요.

1. 어느 시도에서 오셨나요? (예: 경기도) ()
2. 귀하의 도서관에서의 직책은?
① 운영자(관장) ② 유급직원(실무) ③ 순회사서 ④ 공무원 ⑤ 기타
3. 귀하가 소속한 도서관은?
① 공립(운영비 지원)작은도서관 ② 사립 작은도서관 ③ 공공도서관(기타)
4. 작은도서관 운동에 참여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요?
① 1년 이내 ② 2, 3년 ③ 4, 5년 ④ 6년 이상
5.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점수를 준다면?
① 95~85점 ② 84~65점 ③ 46~64점 ④ 45~25점 ⑤ 시작단계
6. 작은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신 참석하신 경험은?
① 처음 ② 2,3회 ③ 4,5회 ④ 6회 이상 ⑤ 작년 참석
7. 이번 워크숍이 귀하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얻었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중간 정도 ④ 불만족
8. 도움을 얻었다면 어느 면에서 도움을 얻었나요?
9. 다음에 바라는 강의 주제가 있다면?
10. 주최/주관측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간단히 기록해 주세요.

(사) 한국작은도서관협회

2016 작은도서관 운영자 권력별 워크숍

- 발행일 : 2016년 9월 28일

-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전화 044-203-2630 <http://www.clip.go.kr>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1길 40

전화 070-7450-2347, <http://www.reading.or.kr>
